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한국판 해제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한국판 해제본

이 책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첫 교수 · 학습 지침서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2015)』를 한국 교육의 맥락에 맞게 풀어 쓰고 설명한 해제본으로서,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기획하여 출판한 것입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발간사

지난 2000년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그 동안 교육을 통한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 구축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교육가 연수, 교사 교류, 교수 · 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은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 유네스코의 주요 교육의제로,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라는 이름 하에 더욱 포괄적인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수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통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교육 2030(Education 2030)'으로 채택된 데 이어,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됨으로써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노력하여 달성해야 할 글로벌 교육 목표이자 개발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교육의제와 정책 수립 동향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적 교육 목표로 설정됨에 따라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이 공유하는 교수학습 기본 가이드에 대한 요청 또한 증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기구인 유네스코는 올해 전 세계 범용 교수 · 학습 지침서인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를 개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지침서의 개발 과정에서 유네스코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원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한국 독자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침서의 한국어 번역본과 더불어 지침서의 내용을 한국의 교육적 맥락 속에서 해설한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를 기획 ·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지침서와 본 한국판 해제본이 세계시민교육을 한국의 교육현장과 정책에 좀 더 내실 있게 반영하고 실천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 우 탁

머리말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화는 21세기 이전부터 우리 현실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사회적 화두였지만,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전 세계가 교육을 통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2030년까지 지구촌이 함께 달성할 교육 목표 및 개발 목표를 설정한 '2015 세계교육포럼'과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세계시민교육'을 향후 추진할 주요 교육 목표이자 개발 목표에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해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의제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한국은 앞으로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의제와 목표에 동참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세계화 교육'을 천명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문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글로벌 인재', '글로벌 교육' 등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교육의 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현장의 익숙한 담론들이 실제 어떤 교육을 지향해왔는지, 우리가 지향하고자 내건 교육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능동적인 지구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이 이들에게 적절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1세기 글로벌 인재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소양, 의지와 행동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 모두에게 21세기 인재가 되도록 기회와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글로벌 인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학습자에게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향후 15년간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교육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이자 우리 교육의 비전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하여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2015 교육과정 총론)'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미 한국 교육과정 총론은 세계시민교육적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이러한 교육철학과 비전이 세부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 진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학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국가교육과정의 철학과 비전에서 실제 교수 · 학습 현장까지는 많은 단계(교육과정 해설, 교과서 집필, 교재 개발, 교사연수, 교육프로그램 기획, 학교교육과정,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설계 등)가 존재하는데, 각 단계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관계자들에게는 전체적인 세계시민교육의 교수 · 학습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도 각 상황에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 교수 · 학습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은 전 세계적인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유엔의 교육 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15년 5월 전 세계 범용 세계시민교육 교수 · 학습 지침서『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를 펴내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개념과 접근 속에서 회원국들이 각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천을 펼치도록 장려하였다. 한국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을 통해 이 지침서의 초안 개발과 현장테스트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및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사들은 유네스코 지침서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침서의 내용을 한국 독자들에게 좀 더 가독성 있게 전달해 주는 한국판 해제본이 개발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책의 목적은 유네스코 지침서를 한국 교육과정의 용어에 맞게 풀어쓰고 맥락화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다문화', '인권', '평화' 등 세부 주제별로 구분된 기존의 관련 교육분야와 비교할 때 이번 유네스코 지침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의 "인지", "사회 · 정서", "행동"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 학습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 세 영역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시적으로 개념화하며, 이를 통해 학습 주제와 연령별 학습목표를 도출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많은 학습 주제가 교과통합의 성격을 띠는 만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체적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며 이미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는 교수방법을 지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 비교해 학습자와 학습환경에 맞게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더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행히 한국의 7차 교육과정부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국제이해교육, 지속발전가능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여러 연관 교육분야가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한 교사들의 역량과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에는 '행복', '인성', '창의 · 융합', '다양성', '민주주의',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등의 화두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구촌 공동의 목표로 제시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새로운 교육 담론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이 연관 교육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욱 의미 있게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게 한다.

한편, 이 책은 현행 2009 개정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도 일부 언급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 책이 개발된 기간의 후반부에 고시되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

상'과 교육목표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향후 몇 년간 교육현장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현행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향후에는 2015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에 좀 더 긴밀하게 접목된 해제본 개정판도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습 성과를 개념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령별 학습 목표와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어떠해야 하며 다층적 · 다면적인 교육현장에서 어떤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계의 논의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교육현장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과도 연동된 작업이 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첫 길라잡이인 이 책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세계시민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한국의 교육현장이 21세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 걸맞은 풍부하고 활발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차례

발간사 **5**

머리말 **7**

1. 개요 **13**
1.1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14
1.2 유네스코 지침서의 개발 과정 17
1.3 한국판 해제본의 개발 과정 18
1.4 지침서와 해제본의 주요 대상 및 활용 방법 19

2.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을 위한 지침 **23**
2.1 학습 영역 24
2.2 학습 성과 26
2.3 학습자 특성 26
2.4 학습 주제 27
2.5 학습 목표 30
2.6 핵심어 30
2.7 학습 매트릭스 31

3.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57**
3.1 교육제도에의 통합방안 58
3.2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안 71
3.3 학습 성과 평가 방안 76

부록 **79**
부록 1: 주요 정보원 및 참고문헌 80
부록 2: 유네스코 지침서에 수록된 주요 사례 및 발표 82

도표

도표 A : 전반적인 지침 **32**

도표 B : 학습 주제 및 세부 학습 목표 **34**

B.1 **학습 주제 :**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36

B.2 **학습 주제 :**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8

B.3 **학습 주제 :**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40

B.4 **학습 주제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42

B.5 **학습 주제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44

B.6 **학습 주제 :**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46

B.7 **학습 주제 :**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48

B.8 **학습 주제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50

B.9 **학습 주제 :** 참여하고 실천하기 52

도표 C : 핵심어 **54**

정리

정리 1 :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 **16**

정리 2 : 국가 차원에서의 유네스코 지침서 활용 방안 **20**

정리 3 :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 **24**

정리 4 : 21세기 교육의 4가지 근간 **25**

정리 5 : 주요 학습자 특성 **27**

정리 6 : 학습 주제 **28**

정리 7 :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59**

정리 8 :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의 의미 **60**

정리 9 :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학습 영역 간의 비교 **61**

정리 10 :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학급별 교육목표 **62**

1

개요

1.1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우리가 지구촌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하나로 결합해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민성(citizenship)[1]의 개념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정의되고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다. '시민(citizen)'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를 통치의 기본질서로 삼은 고대 그리스에서 공동체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구성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성별과 계층, 신분 등의 제약으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일부 특권계급만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이해되었다. 근대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제도화한 19~20세기를 거치며, 시민권은 특정 국민국가(nation-state)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기본권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시민(citizen 또는 citoyen)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긴 인류 역사를 통해 부단히 발전해 온 보편적인 개념이다. 시민은 신민 또는 국민 개념과 비교할 때 보다 명료해진다. '신민(subject)'이 절대군주체제 하에서 군주의 지배를 받는 신하라면, '국민(nation)'은 근대국가를 전제로 하는 국가의 구성원을 뜻한다. 이에 반해 '시민(citizen)'은 사회의 주체인 동시에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성(citizenship)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별 시민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행동 성향을 뜻한다. 시민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민주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의 총체를 의미하며,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 한경구 외『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이처럼 근대사회의 시민권이 주로 '국가'와 그 구성원인 '국민'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규정된 '권리'로 부각되었다면, 시민사회가 성장한 현대에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역할과 책무를 실천하며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개념이 강조된다.

한편, 갈수록 빨라지는 세계화는 거시적 · 구조적 차원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자유무역, 이주와 난민, 기후변화와 환경, 갈등과 분쟁, 실시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우리의 개인적 ·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상이 단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발생한다는 것은 세계 거의 모든 장소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이 전 지구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성의 세계적 차원'은 시민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식

---

* 본 해제본에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한국 교육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번역하였으나 교육과정 밖의 맥락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번역된 행사명이나 출판물 제목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1. Citizenship에는 시민의 권리, 책무, 의식, 자질 등의 의미가 모두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유네스코 지침서의 한국판 해제본인 이 책에서는 citizenship을 '시민의식', '시민성' 등 각 맥락에 맞게 번역하되, '시민성'을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틀을 넘어 '세계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은 '세계시민'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공동체적 상생(相生)과 공영(共榮)의 가치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향점을 세계시민의식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시민교육은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인류가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온전히 기능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세계시민의식 또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말하며, 지역 · 국가 · 세계적으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2],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중점 목표는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등 관련 분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이러한 분야에 이미 적용된 다양한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주요 교육 목표라고 주창하였다. 이 구상은 이후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교육 2030(Education 2030)'으로 이어져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달성하기로 합의한 글로벌 교육목표에 포함되었다.

"사회 · 정치 · 경제 · 환경적 도전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산적해 있는 오늘의 세계화 시대에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학습자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하며, 학습의 인지적 · 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시민이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정보 속에서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며,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과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평화교육과 인권교육, 문화간 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포괄한다.

– 『교육 2030 실행계획』 중에서

2. 원문의 "skills"는 교육학에서 '기능(技能)'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해제본에서도 일반적으로 '기능'으로 번역하였다. 다만,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등 기존의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로 번역하였으며, 맥락에 따라 더 적절한 경우에는 '능력,' '역량'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 실천사례 검토 결과와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유네스코가 개발한 세계시민교육의 구성틀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 개념 영역을 포함한다.

정리 1: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

인지적 영역

지역사회 · 국가 · 범지역 · 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 ·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 · 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이 세 가지 개념 영역은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역량에 대한 정의와 척도 개발, 평가지표 구성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과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별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별이 개념적 · 분석적 · 교육과정적 구분이지, 학습 자체가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은 이 세 영역을 모두 포함하면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1.2 유네스코 지침서의 개발 과정

이 한국판 해제본이 설명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이하 유네스코 지침서)는 195개국에 이르는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 · 학습 지침서로서,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로 떠오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요청의 산물이다. 유네스코 지침서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 유네스코의 최근 출판물과 전문가회의,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들과 청년 대표들의 조언에 바탕을 두고, 전 세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지침서의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앞서 시행되어 지침서에 필요한 개념적 근간을 제공한 주요 유네스코 회의 및 결과물로는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2013년 9월, 서울)'[3]에 기반을 둔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와 '제1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3년 12월, 방콕)'의 결과를 종합한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Global Citizenship Educatio: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지침서의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유네스코는 2014년 6월 세계시민교육, 변혁적 교수법, 교육과정 개발 및 비형식교육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Experts Advisory Group)의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초안을 검토 · 논의하는 한편,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자문그룹의 검토 및 수정 과정은 같은 해 9월과 10월 회의는 물론 중간 과정에서의 서면 회의 등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수정본은 '제2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5년 1월, 파리)'에 참가한 전 세계 회원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청년 및 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되고 논의되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선정된 국가의 교육부 관계자, 교육과정 개발자, 교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현장 테스트와 피드백을 거쳐 최종 마무리되었으며, 2015년 5월에 열린 세계교육포럼을 기하여 발간되었다.

3. 본 회의는 2012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창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으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논의에 급부상한 이후 처음 열린 국제회의이다. 유네스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정부(외교부와 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에는 유럽평의회 남북센터, 아프리카 교육발전협회, 미주기구 등 지역협의체 대표를 포함한 전 세계 각 대륙의 전문가,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이슈와 실천 사례, 개념, 우선순위, 실행 프레임워크에 관해 논의하였다

1.3 한국판 해제본의 개발 과정

이 책은 유네스코가 2015년에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 · 학습 지침서를 한국 교육현장의 맥락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필요한 설명을 덧붙인 한국판 해제본이다. 유네스코 지침서는 형식교육뿐 아니라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 영역에서도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구성된 반면, 이 해제본의 내용은 주로 학교교육과 국가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다. 본 해제본 개발을 위한 자문과 연구, 집필과 검토 과정에는 세계시민교육/국제이해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대와 사범대학 교수, 초 · 중 · 고 전현직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해제본 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초안이었던 유네스코 지침서를 참고삼아 현행 한국교육과정을 분석 · 재구성하여 일종의 국내용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초기 기획단계에서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유네스코 지침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이 지침서에 있는 주요 용어들을 재정리하고 한국의 교육과정 맥락에 맞게 풀어쓴 한국판 해제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적 논의의 결과물인 유네스코 지침서와 한국 교육과정 사이에는 구조적인 간극이 커 지침서를 한국의 교육과정에 직접 접목하기가 어려우므로 교육과정 해설이나 개정, 교과서 집필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이 될 만한 한국판 해제본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유네스코 지침서는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만큼 내용의 일반화 · 추상화 수준이 높으며 구체적이고 풍부한 설명 없이 기술되어 단순히 번역본만 읽어서는 용어도 혼란스럽고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이 한참 진행 중인 시점이어서 지침서를 한국의 교육과정과 직접 접목하는 것은 2015년도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유네스코 지침서의 세부내용을 한국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이러한 개발 취지를 바탕으로 한국판 해제본 1장에서는 유네스코 지침서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세계시민성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념적, 교육담론상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는 방식을 따랐으며, 2장에서는 유네스코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핵심 도표와 함께 그대로 제시하되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부연설명을 별도로 첨부하였다. 3장에서는 지침서를 한국 국가교육과정에 접목할 때 세계시민교육을 더욱 잘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육현장의 요건을 여러 나라의 실천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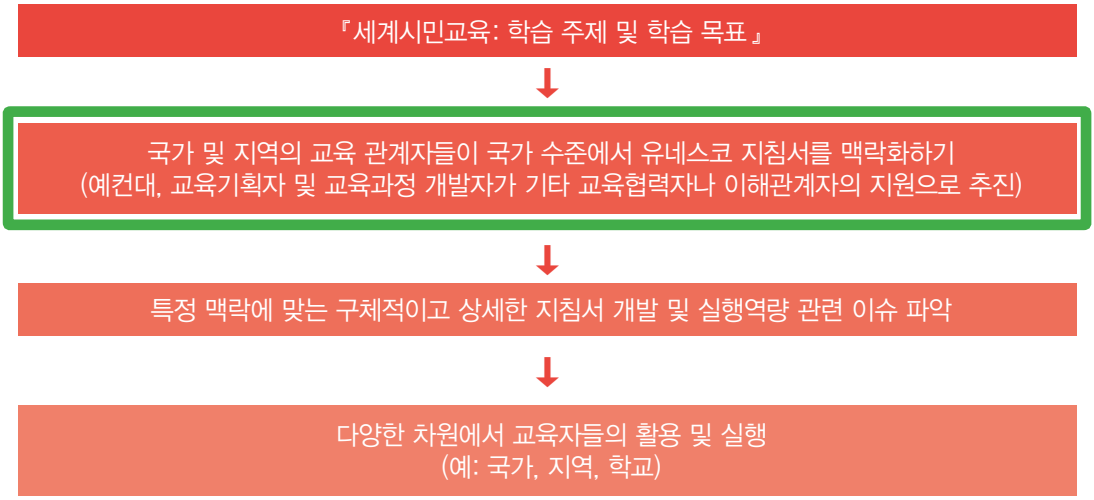
1.4 지침서와 해제본의 주요 대상 및 활용 방법

유네스코 지침서는 다양한 교육자들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주요 활용자로 교육과정 개발자, 교사교육자 및 정책입안자를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교육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교육현장에서 통용되는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지역적 · 문화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내용과 구성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쟁점을 추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향후 중요한 사례들로 축적되어 지침서를 보완하는 데 반영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며 이미 축적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나누어주는 교수 · 학습 방법을 지칭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교내외, 교과 · 비교과 활동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철학은 열린 사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 지침서의 개발 목적도 교과서적인 문답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의 정도나 실천 역량, 철학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그 정의를 명료하게 소개함으로써 개념상의 오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하나의 안내서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에 옮길 때 분산되고 분절된 노력을 결집하고 무엇보다도 실천 주체들 간의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개념적 틀을 제시한 안내서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지침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수법을 구상하여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연관분야와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과의 상승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유네스코 지침서의 또 다른 목표이다.

아래의 흐름도는 전 세계 범용 지침서로 개발된 유네스코 지침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단계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의 지침서를 한국의 교육제도와 환경, 교육과정에 맞도록 맥락화하고 보완한 작업인 한국판 해제본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정리 2: 국가 수준에서의 유네스코 지침서 활용 방안



물론 유네스코 지침서의 연령별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는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은 일반적으로 학교이고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능이나 학습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공교육의 영역이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설에서 다룰 용어의 선정이나 내용은 공교육 영역에 주안점을 두어 재구성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 수준의 재구성이나 해설 작업이라면 반드시 교육과정이나 공교육 시스템과의 접목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한편,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실행된 맥락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을 비롯하여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 내용에서 이미 학습자들을 세계시민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비전과 내용을 상당 부분 담아내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 참조). 둘째, 국제사회의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한국은 post-2015 교육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교육 분야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초석을 다져온 세계시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기여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셋째, 세계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공공영역이 다양한 층위와 방식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발한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교육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와 주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세 축으로 대변되는 국내적 맥락에서 많은 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교사 개개인과

교육공동체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지침서와 이 한국판 해제본을 바탕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시민교육을 다양한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해보는 실천 경험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현장과 기존의 교수 · 학습 경험을 다각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즉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에 대해 눈과 귀를 여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교육적 문제(암기 위주의 교육, 치열한 입시경쟁,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자주 귀결되는 공교육 담론의 잦은 변경 등)를 해결하는 데 신선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네스코 지침서가 의도하는 바의 하나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 교사교육 · 평생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 관련 활동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성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교육 및 개발 목표를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을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과 실천방식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2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을 위한 지침

2.1 학습 영역

학습 영역은 학습자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할 영역이다. 학습 영역의 분류로는 블룸(Bloom)과 가네(Gagne)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블룸은 학습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으로, 가네는 지적 기능, 인지전략, 언어정보, 태도와 운동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본 해제본에서는 학습 영역을 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리 3: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영역

인지적 영역

세계와 그 복잡성, 세계의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의미한다. 지식은 주로 아는 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지적 과정이자 모든 지적 능력의 토대를 이룬다. 사고 기능(thinking skills)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정보나 자료를 조직하고 이용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래서 사고 기능에서는 정보의 분류, 해석, 분석, 요약, 종합과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사고 기능은 분석적, 비판적, 통합적 사고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 · 정서적 영역

가치와 태도, 사회적 기능을 의미한다. 이 중 가치와 태도는 정서적 영역에 해당한다. 가치는 사람의 전반적인 신념체계에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믿음이다.[4] 이런 가치는 행동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 반면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할 정신적 준비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가치는 곧 태도로 나타난다.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능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려, 존중, 연대 등이 필요하다.

행동적 영역

행위, 수행, 실천 및 참여, 즉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는 영역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 지식과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시민행동, 사회참여, 민주시민행동 등을 강조하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필요로 한다. 사회 · 정서적 영역은 주로 동기를 강조하고, 행동적 영역은 주로 행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감(sympathy)은 동기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나눔(sharing)은 행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 지침서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기본 학습 영역은 유네스코가 21세기 교육의 화두를 평생교육으로 두고 발간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 *Learning: Treasure Within*』 제 4장에서 학습의 4가지 근간으로 언급한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과 맥을 같이 한다.

4. Rokeach, Milton, 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s

'알기 위한 학습'은 일반적인 지식과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평생 동안 배움을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 '행동하기 위한 학습'은 직업적 기능의 신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과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이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은 타인과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계발하여 다원주의, 상호이해 및 평화의 측면에서 우리의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학습이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계발하고, 자율성, 판단과 개인적 책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이다.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 학습의 이 4가지 근간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도 일치한다. 즉, 인지적 영역은 '알기 위한 학습'과, 사회 · 정서적 영역은 '존재하기 위한 학습' 및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행동적 영역은 '행동하기 위한 학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리 4: 21세기 교육의 4가지 근간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충분하고 광범위한 일반 지식을 소수의 주제까지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하는 데 쓰인다. 이는 또한 학습하기 위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직업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보다 넓게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데 쓰인다. 이는 또한 젊은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직무경험을 통해 획득된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타인을 이해하고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는 다원주의 · 상호이해 ·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신으로 타인과 함께 공동과업을 수행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서 얻어진다.	개인의 인성을 보다 잘 성장시키고, 보다 큰 자율성 · 판단력 ·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어떤 잠재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기억력, 추리력, 미적 감각, 체력, 의사소통기술이 포함된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제시한 학습 영역을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 기능을 강조한다. 사회 · 정서적 영역은 정의적,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계발하고, 타인과 상호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 태도 및 사회적 기능을 말한다. 행동적 영역은 세계시민으로서 지역, 국가와 세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슈와 문제에 대하여 실행, 수행, 실천 및 참여를 강조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이 세 가지 학습 영역은 이 해제본에서 앞으로 살펴볼 주요 학습 성과, 주요 학습자 특성,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인지적, 사회 · 정서적, 행동적 영역은 서로 별개의 학습 과정이 아니다. 이 세 학습 영역은 학습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고 통합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2.2 학습 성과

학습 성과는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여 학습자가 성취하길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의미한다. 즉, 세계시민교육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이다. 여기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성과를 지식, 기능 및 가치와 태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식 목표는 인지적 영역에서, 가치와 태도 목표는 사회 · 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서, 기능 목표는 세 영역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행동적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학습 성과에 사회참여 혹은 사회적 행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3 학습자 특성

학습자 특성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성과를 실현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자의 자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학습자 특성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은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informed and critically literate) 학습자',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socially connected and respectful of diversity) 학습자',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ethnically responsible and engaged) 학습자'이다.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세 학습 영역(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과 각각 일치한다. 또한 위의 세 가지 학습자 특성은 각자 그 특성이 강조되면서도 상호 연계돼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리 5: 주요 학습자 특성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인지적 영역으로,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조 및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 세계시민성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탐구와 분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사회 · 정서적 영역으로, 자아정체성, 상호관계성과 소속감의 이해, 공유 가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양성과 보편성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과 관련이 깊은 학습자 특성이다.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행동적 영역으로, 인권보호, 타인과 환경을 돌보려는 가치와 태도, 개인적 · 사회적 책무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윤리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 더 좋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능을 계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과 관련이 깊다.

2.4 학습 주제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틀이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학습 영역과 학습 성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세 가지 학습자 특성의 구현을 목적으로 구성된 총 9개의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9개의 학습 주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개념화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라는 주제는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라는 주제는 우리가 서로 달라도 같은 존재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임을 지향하며,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라는 주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9가지 학습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 6: 학습 주제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1.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과 권력의 역학관계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7.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먼저,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학습 주제는 ①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②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③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이다.

이 세 주제는 세계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세계 체계와 구조 등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인지적 영역에 해당한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이슈는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다중적으로 연계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주제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현상에 깔려 있는 암묵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능력인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현상은 당연한 듯 전제된 사실과 의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권력관계를 반영한 결과이다.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는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현상을 진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학습 주제는 ④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⑤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⑥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이다.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차원, 즉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다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에 살면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중 시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한 사람들

은 다양한 종교, 신념, 성[5], 문화 등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 세계에서 공동체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교통, 통신, 경제, 정치, 문화 등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특히 교통, 통신과 미디어 발달은 이들의 상호연계 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종교, 이념, 성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루며 생활한다. 여기서 서로 다름을 지칭하는 용어는 '차이'이다. 그러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종교, 이념, 성의 차이는 존중하되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존중, 차별의 근절은 문화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삶의 자세는 세계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학습 주제는 ⑦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⑧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⑨ 참여하고 실천하기이다.

세계시민으로서 학습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다양한 실천을 행할 수 있다. 실천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타인과 함께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행위이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실천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실천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실천에 필요한 기능들을 익히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한편, 실천을 다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행동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강조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진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다른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정여행이나 공정무역,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경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서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은 실천과 행동이 개인과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와 태도, 의지와 기능을 함양하도록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기'에서, 참여는 세계시민으로서 주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이다. 학습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때로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주요 이슈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실천은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서는 이슈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5. 유네스코 지침서에서는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性)'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2.5 학습 목표

앞에서 언급한 학습 주제에 적합한 학습 목표를 학교 급별, 즉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5~9세), 초등학교 고학년(9~12세), 중학교(12~15세), 고등학교(15~18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학습 목표는 기본적으로 내용의 심화 수준에 따라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학교 급별로 소개하고, 학습자의 발달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주어진 상황과 학생들의 준비도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학습 목표를 선택, 변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2.6 핵심어

유네스코 지침서에서 소개하는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핵심어를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 절에 제시된 도표 A와 도표 B에 이어 도표 C에서 참조할 수 있다.

도표 C는 각 맥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로 보완할 수 있다.

2.7 학습 매트릭스

여기에서는 유네스코 지침서에서 제시된 세 가지 학습 영역, 주요 학습 성과, 주요 학습자 특성, 연령 및 교육 단계별로 구분된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 핵심어를 각각 소개한다.

- **도표 A**는 유네스코 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조도로서, 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 **도표 B**는 도표 A를 세분화하여 각 학습 주제에 맞는 연령별, 교육단계별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도표 B.1–B.9**는 각각의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각 학습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 기능, 가치, 태도는 물론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단계별로 구분된 각 도표는 연령에 적합한 학습 목표와 핵심 주제를 제시한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좀 더 심화된 주제를 다루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 학습을 위한 구성 요소를 담고 있다.

- **도표 C**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토론과 관련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어 목록을 소개한다.

이 세 도표는 특정한 교육적 처방이나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와 지역의 맥락에 맞게 조정 및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각 도표는 도식화하여 제시된 것으로,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도 학습할 수 있다. 실제 교수 · 학습 과정에서는 모든 개념과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도표 A: 전반적인 지침

도표 A는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전체적인 구조를 학습 영역, 학습 성과, 학습자 특성,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먼저, 도표 A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체계의 수직적인 구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세계시민교육의 전체 구조를 학습 영역 → 주요 학습 성과 → 주요 학습자 특성 → 학습 주제 → 학교 급별 학습 목표 순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평적으로 각 세 개씩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즉 학습 영역은 인지적, 사회 ·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주요 학습 성과는 앞의 영역에 맞추어 두 가지씩 제시하고 있다. 주요 학습자 특성은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로 구분한 후, 이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세 가지씩 제시한다. 학습 주제는 각 주요 학습자 특성에 맞추어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습 주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학습 목표를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5~9세), 초등학교 고학년(9~12세), 중학교(12~15세), 고등학교(15~18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학습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주요 학습 성과

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 학습자는 지역 · 국가 · 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발달시킨다.	•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 • 학습자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	• 학습자는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학습자는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주요 학습자 특성

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의 이슈와 거버넌스 체계 및 구조를 인지한다. • 세계적 이슈와 지역적 이슈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이해한다. • 비판적 탐구와 분석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한다.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 여러 정체성과 인간관계, 소속감을 기르고 유지한다. •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타인과 공유한다. •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 바람직한 기능, 가치, 신념, 태도를 실천한다.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보여준다. •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학습 주제

인지적 영역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
1.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2.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7.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9. 참여하고 실천하기

연령/교육단계별 학습 목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5~9세)	초등 고학년 (9~12세)	중학교 (12~15세)	고등학교 (15~18세 이상)

도표 B: 학습 주제 및 세부 학습 목표

아래의 도표 B는 도표 A에서 제시한 9가지 학습 주제에 대해 4가지 연령 및 교육단계별로 구분한 학습 목표를 보여준다. 각 학습 주제와 학습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도표 B.1–B.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주제	학습 목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5~9세)	초등 고학년 (9~12세)	중학교 (12~15세)	고등학교 (15~18세 이상)
1.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지역 환경이 어떻게 조직되며 더 넓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시민성 개념을 소개한다.	거버넌스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시민성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가 어떻게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는지 논의하고, 세계시민성 개념을 탐구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2.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의 주요 이슈를 열거하고,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주요 글로벌 이슈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이슈가 국가와 지역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지역 · 국가 ·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적 요인과 세계적 요인이 상호 연결돼 있음을 고찰한다.	지역 · 국가 · 세계의 이슈, 의사 결정의 결과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제안해본다
3.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정보를 구하는 여러 경로를 확인하고, 탐구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춘다.	사실과 의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구별한다.	암묵적 가정을 조사하고,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사람들의 발언권, 영향력, 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4.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 개인의 성찰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을 계발한다.	정체성의 다양한 층위를 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다양한 사회집단을 구분하고,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함양한다.	여러 층위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집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5.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이점과 연결관계를 설명한다.	사회적 · 문화적 · 법적으로 공유된 다양한 규범을 비교 · 대조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른 개인과 사회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기른다.	서로 다른 집단, 공동체, 국가 간의 연결 관계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6.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고, 모든 사람은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킨다.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가 지닌 장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다양한 집단 및 관점에 대응하여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기능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7.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개인과 단체가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찾아보고,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8.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한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사회정의 및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해결과제와 딜레마를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 행동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행동을 한다.
9. 참여하고 실천하기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한다.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을 시작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을 계발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행동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실천에 옮긴다.

B.1 학습 주제
지역 · 국가 · 세계의 체계와 구조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지역 환경이 어떻게 조직되며 더 넓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시민성 개념을 소개한다.

핵심 주제

- 자신, 가족, 학교, 이웃, 공동체, 국가, 세계
- 세계가 조직되는 방식(집단, 공동체, 마을, 도시, 국가, 범지역)
- 관계, 소속, 규칙 결정과 참여(가족, 친구, 학교, 공동체, 국가, 세계)
- 규칙과 책임이 존재하는 까닭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이유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거버넌스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시민성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핵심 주제

- 지역 · 국가 ·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와 체계, 이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연결관계(무역, 이주, 환경, 언론, 국제기구, 정치적 · 경제적 연합, 공공 및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 여러 권리와 책임, 규칙과 의사결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다양한 사회에서 이들을 유지하는 방식(역사, 지리, 문화 살펴보기 등)
- 시민성을 정의하는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
- 바람직한 거버넌스,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 투명성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가 어떻게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는지 논의하고, 세계시민성 개념을 탐구한다.

핵심 주제

- 국가적 맥락과 역사, 다른 국가와의 관계 및 연결성과 상호의존성, 국제기구 및 (문화적 · 경제적 · 환경적 ·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세계적 맥락
-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법률과 사법제도), 국가 · 지역 ·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상호연결관계
- 세계 차원의 의사결정이 개인, 공동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시민의 권리 및 책임과 이들이 적용되는 방식
- 세계시민의 본보기 및 사례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한다.

핵심 주제

-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계, 구조, 과정과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규제와 정치, 의사결정 방식
- 개인과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집단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 지구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지구촌 공동의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역할, 전 지구적 연결관계, 상호연결성, 연대,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 국가 간 불평등과, 그러한 불평등이 글로벌 거버넌스 하에서 여러 국가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 갖는 의미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영역 중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주제는 세계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지역, 국가와 세계의 체계와 구조에 관한 지식을 다루고 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한 개인은 자아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환경 확대에 따른 다양한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또한 세계가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호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세계의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을 이해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국가와 지역 구조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세계 차원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조와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른다. 즉, 세계가 구성되는 체계의 상호의존성과 더불어 현상에서의 불평등과 불의(injustice)와 같은 측면도 이해한다.

즉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시민성의 기초 개념을, 초등학교 고학년은 시민성의 과정과 다양한 차원을, 중학교는 세계시민성 개념을, 고등학교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학교 급별로 그 수준과 내용이 심화 ·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나선형 교육과정 구조를 보여주며, 이런 나선형 교육과정 구조는 이하 제시되는 모든 주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해 돕기

자신, 가족, 학교, 이웃, 공동체, 국가, 세계	인간의 활동범위가 나로부터 세계까지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다르게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호 포섭관계를 지니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통치(統治, government)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협치(協治)로 번역된다. 거버넌스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따라서 거버넌스에 대한 파악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관련된 공식적 · 비공식적 관계자들, 결정을 합의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공식적 · 비공식적 구조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거버넌스의 전통적인 참여 주체이며, 다양한 민간 주체와 민관(public and private sectors)을 제외한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왔다. 여러 주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함에 따라 정책 결정의 구조와 방식, 과정과 결과가 달라진다.
글로벌 거버넌스 (global governance)	한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들은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 환경, 경제, 문화, 권력 등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다양하고 적합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권력이 적절히 분산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반대로 범죄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세력가 등 비공식적 관계자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투명성(transparency)	국가나 지방 행정, 기업 운영 등에서 일의 규칙, 계획, 과정과 행위를 명백히 하려는 개념이다. 이것은 공무원, 관리자, 기업인 등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떳떳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이들의 활동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한다.

B.2 학습 주제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의 주요 이슈를 열거하고,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상호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핵심 주제
-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 사회, 정치, 경제 및 기타) 이슈
- 한 국가 및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겪은 유사하거나 상이한 문제들
- 글로벌 이슈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갖는 의미
- 개인과 공동체가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주요 글로벌 이슈가 왜 발생하며, 그러한 이슈가 국가와 지역 차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핵심 주제
- 전 지구적 변화와 발전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 (기후변화, 빈곤, 성 불평등, 환경오염, 범죄, 갈등, 질병, 자연재해 등) 글로벌 이슈와 그 원인
- 지역적 이슈와 세계적 이슈의 상호의존적 연계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지역 · 국가 ·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적 요인과 세계적 요인이 상호 연결돼 있음을 고찰한다.

핵심 주제
-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의 문제들과 그 원인
- 변화하는 글로벌 권력과 패턴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 역사 · 지리 · 정치 · 경제 · 종교 · 기술 · 미디어 및 기타 요인들이 오늘날 글로벌 이슈(표현의 자유, 여성의 지위, 난민, 이주민, 식민주의의 잔재, 노예제도, 소수민족 및 소수종교, 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
- 세계적 · 지역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지역의 환경과 그 지역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지역 · 국가 · 세계의 이슈, 의사결정의 결과 및 그에 대한 책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제안해본다.

핵심 주제
- 지역 · 국가 · 세계의 주요 이슈와 이러한 이슈에 대한 관점 탐구(성차별, 인권, 지속가능발전, 갈등과 평화, 난민, 이주, 환경의 질, 청년실업)
- 글로벌 이슈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심층분석(근본 원인 및 요인, 행위자 및 차원,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대응방식의 효과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조정, 중재, 제재, 연합)
- 역사 · 지리 · 정치 · 경제 · 문화 및 기타 요인들이 글로벌 이슈와 그 상호의존적 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지역 및 세계적 연결관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 및 의사소통(아동의 권리, 지속가능발전)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영역 중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를 구현하기 위한 두 번째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이슈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작용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지역, 국가와 세계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이 이슈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지역사회와 국내외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인과 지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이슈가 개인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주요 글로벌 이슈의 원인과 이것이 지역과 국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기후변화, 빈곤, 성차별, 오염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와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세계 문제와 지역 문제가 상호 연계되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중학교에서는 주요 지역, 국가와 글로벌 이슈의 원인과 다양한 인자의 상호연계성을 평가한다. 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현재의 세계 문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의사결정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본다.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국가와 글로벌 이슈, 책무성과 의사결정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살펴본다. 글로벌 이슈의 본질을 심층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이 세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학습 주제 2는 이슈 살펴보기, 이슈의 원인과 이로 인한 영향 정도 조사하기, 이슈의 원인 평가하기, 이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의 제시로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지역과 글로벌 이슈의 상호작용을, 중학교에서는 글로벌 이슈가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정도를, 고등학교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탐구와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주제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지역, 국가와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한다.

이해 돕기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위해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칭한다(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법(2015. 3. 27시행) 제2조 참조).
다국적 기업 (multinational corporation)	다수의 나라에 제조 시설과 영업망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런 기업은 국가, 국경, 국적을 넘어 활동을 하므로 초국가 기업이라고도 한다. 다국적 기업은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다국적의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 세계에 영업 및 제조 거점을 가지고 이를 현지 법인으로 설립한다. 다국적 기업은 유리한 산업입지의 획득, 수출시장의 확보와 증대, 잉여생산력의 해외 이전 용이, 자원 확보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아동의 권리(child rights)	독립된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 개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종, 성별, 나이, 국적, 피부색,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모든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생존권, 학대와 방임,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명시한 보호권,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신체적 · 정서적 · 도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발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 참여권을 4가지 기본 권리로 규정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협약 내 사회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3 학습 주제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정보를 구하는 여러 경로를 확인하고, 탐구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춘다.

핵심 주제

- 정보를 구하는 다양한 경로와 도구(친구, 가족, 지역공동체, 학교, 만화, 소설, 영화, 뉴스)를 활용한 정보 수집
- 정확하고 명확하게 듣고 의사소통하기(의사소통기술, 언어)
- 핵심 아이디어 찾기 및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
- 복잡하거나 모순된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의 해석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사실과 의견,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구별한다.

핵심 주제

- 미디어 문해력 및 소셜 미디어 활용능력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 다양한 견해와 주관(subjectivity), 근거와 편견
- 관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젠더, 나이, 종교, 민족, 문화, 사회 · 경제 · 지리적 맥락, 이념 및 신념체계 등)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암묵적 가정을 조사하고,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설명한다.

핵심 주제

- 평등, 불평등, 차별의 개념
-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불평등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 겪는 어려움(이주민, 여성, 청소년, 소외집단)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분석(핵심 주장 찾기, 근거 수집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 대조하기, 관점 및 편견 찾아내기, 모순된 주장 찾기, 정보 평가하기)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권력의 역학관계가 사람들의 발언권, 영향력, 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핵심 주제

- 권력의 역학관계라는 관점에서 본 현대의 글로벌 이슈 분석(성평등, 장애, 청년실업)
-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시민성과 시민참여를 촉진 · 저해하는 요인(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역학관계, 권력관계, 소외, 차별, 국가, 군사력, 사회운동, 노동조합)
- 글로벌 논의에서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세계시민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관점, 반대의견과 소수의견, 평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로서 비판적 탐구와 분석 기능을 계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다양한 정보원(情報源)이 존재함과 이를 이용한 정보 수집을 알고, 탐구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비판적 분석의 핵심적인 활동인 사실과 가치(의견), 실재와 허구,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구별하는 능력을 계발한다.

중학교에서는 어떤 주장과 관점에 깔려 있는 암묵적 가정을 살펴보고,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알아본다.

고등학교에서는 권력의 역학관계가 여론, 정보 접근, 의사결정 과정과 거버넌스에 미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학습 주제 3은 지역, 국가와 세계 차원의 이슈 및 비판적 분석 기능 알아보기, 비판적 분석을 위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의 구분하기, 암묵적 가정의 탐색 및 불평등과 권력의 역학관계 설명하기, 권력의 역학관계가 미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순으로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이슈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관점에 미치는 인자의 분석, 불평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인자의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해 돕기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	비판적 사고력은 지식의 정확성이나 순수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 주장의 구분, 출처의 신뢰성 여부, 사실의 정확성 판단, 편견의 확인, 암묵적 가정의 파악, 추론의 논리적 모순 파악 등을 갖추어야 한다.[6] 암묵적 가정의 파악은 주장의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서 암묵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즉, 주장의 기본 전제를 파악하여 주장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권력의 역학관계(power dynamics)	사회과학이나 정치학에서 권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집단, 조직이나 규칙 등 행위자나 대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하여 움직이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지위나 정도에 따라서 권력의 역학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관계는 개인, 사회집단, 국가, 부 등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불평등의 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한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주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이용한 지식을 갖춰 미디어 정보의 질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미디어의 이용 능력과 미디어로 제시된 정보의 해석 능력, 정보를 생산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 여부, 나아가 정보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자질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의 능동적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성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6. Beyer(1985), pp.270–276.

B.4 학습 주제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 개인의 성찰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을 계발한다.

핵심 주제

- 자아정체성, 소속감, 관계(자신, 가족, 친구, 공동체, 지역, 국가)
-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계와의 연결 방식
- 자존감과 타인의 존엄성
-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맺기
-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
- 도움 요청 및 제공
- 의사소통, 협력, 타인에 대한 배려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정체성의 다양한 층위를 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정체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핵심 주제

- 개인이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방식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 다양한 방식(미디어, 여행, 음악, 스포츠, 문화)을 통해 우리와 가까운 지역을 넘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
-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 공감, 연대의식, 갈등 관리 및 해결, 폭력 예방(성별에 따른 폭력과 집단 괴롭힘 등)
- 협상, 조정, 화해, 모두에게 유리한(win–win) 해결책
- (긍정적/부정적인) 격한 감정의 조절 및 관리
- 친구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압력에 맞서기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 다양한 사회집단을 구분하고,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함양한다.

핵심 주제

-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 여러 집단에 느끼는 소속감 및 연결관계
- 개인 및 집단 정체성, 신념 및 (개인 · 단체 · 전문가 · 시민으로서의) 관점의 복잡성
-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는 적극성과 협력적 태도
-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여러 층위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사회집단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핵심 주제

-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본 지역 · 국가 · 범지역 · 세계적 맥락에서의 개인 정체성과 소속감
- 집단 정체성 및 공동의 가치관, 세계시민 문화 형성의 의미
- 문화적 · 경제적 · 정치적 사례(소수민족과 소수종교, 난민, 노예제도의 역사적 잔재, 이주)를 통해 이해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사건, 그리고 시민정체성과 소속감의 복합적인 개념
- 성공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 (개인적 · 집단적 관심, 태도, 가치와 기능)
- 개인 및 집단의 안녕을 도모하고 증진하기 위한 헌신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사회 · 정서적 영역인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로서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과 기능을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개인이 세계 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자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능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개인은 집단에의 소속감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정체성을 지닌 존재임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그 정체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개인이 지역사회, 세계 등과 다양한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함을 살펴보고, 이 관계를 존중하는 다양한 기능을 살펴본다.

중학교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차원의 사회 집단에 소속함으로 일어나는 다중 정체성을 살펴보고,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을 함양한다. 여기서는 개인이 다중 정체성을 지닌 존재여서 일어나는 신념과 관점의 다양성을 살펴본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다양한 집단과 평화적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학습 주제 4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지닌 존재라는 자아 인식하기,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인식하기,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기와 평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순으로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 다중 정체성을 지닌 자아의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중 정체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이해, 이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해 돕기

자아정체성(self-identity)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관해서 통합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인간관, 세계관, 미래관 등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 두산백과
다양한 층위의 정체성/다중 정체성 (multiple identities)	다중 정체성은 한 개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수의 정체성은 때로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서로 중첩되기도 한다.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수의 정체성 중에서 상황에 따라 특정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예를 들면 개인은 세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집단에 속한다. 즉, 개인은 지역 정체성, 국가 정체성, 세계 정체성 등을 동시에 갖게 된다.
난민(refugee)	'전쟁 난민' 등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의 난민은 국내외적으로 법적 지위를 수반하는 개념이다. 유엔난민협약을 수용한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B.5 학습 주제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다양한 사회집단의 차이점과 연결관계를 설명한다.

핵심 주제
- 한 사회와 문화 또는 여러 사회와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젠더, 연령, 사회 · 경제적 지위, 소외집단)
- 공동체 간의 연결관계
- 최소한의 삶의 조건 및 인권
- 인간과 모든 생물, 환경 및 사물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사회적 · 문화적 · 법적으로 공유된 다양한 규범을 비교 · 대조한다.

핵심 주제
-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다양한 문화와 사회, 다양한 관점이 지니는 가치
-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집단에 의한 법규 제정 및 참여
- 정의의 개념과 사법접근권
-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른 개인과 사회집단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기른다.

핵심 주제
- 개인적 가치와 공유 가치 간의 차이점과 이러한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
-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데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존중, 관용과 이해, 연대, 공감, 배려, 평등, 포용, 인간 존엄성)
- (사회적 · 환경적) 차이와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헌신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서로 다른 집단, 공동체, 국가 간의 연결관계를 비판적으로 파악한다.

핵심 주제
- 국제사회에서 시민, 단체, 국가의 권리와 책임
- 정당성, 법치주의, 적법절차 및 정의의 개념
- 공동체의 행복 증진 및 세계의 행복에 대한 위협 요인과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모두를 위한 인권 보호 및 증진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사회 · 정서적 영역인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을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그 연계를 살펴본다. 여기서 사회집단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법 규범을 상호 비교하고 대비한다. 사회 속에는 다양한 문화와 관점이 존재함을 알고 이를 존중한다.

중학교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며, 타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한 감정이입과 연대의식을 기른다. 개인적 가치와 공유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배우고 인류 공통의 가치의 중요성을 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집단, 지역사회와 국가 간의 연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서는 세계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모두를 위한 인권보호 등을 살펴본다.

학습 주제 5는 사회집단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기, 다양한 가치를 비교하기,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다양한 집단의 상호연계성을 비판하기 순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해 돕기

젠더(gender)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생물학적 성이 주어진 것이라면,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그래서 젠더는 신체적이고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이다.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사법제도 및 절차, 관련 정보를 누구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법절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 지적 장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정한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적 재원을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민주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절차 개혁 방안에 사법접근권이 포함된다.
적법절차(due process)	개인의 권리 보호와 집행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인 규칙과 원리에 따른 법적 절차로, 영장주의, 사전통지, 법정 내지 행정기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적법절차의 원리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이며, 단순히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한 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적정한 실체법의 원리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즉 적법절차의 원리는 입법 · 행정 · 사법 등 국가의 모든 활동이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일반원리로 받아들여진다.

B.6 학습 주제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같음과 다름을 구분하고, 모든 사람은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핵심 주제

- 우리와 다른 공동체 사람들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만드는 요소(언어, 연령, 문화, 삶의 방식, 전통, 특징)
- 모두의 행복을 위한 존중 및 좋은 관계의 중요성
- 듣고, 이해하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에 대해 동의, 반대하거나 인정하는 법
- 타인과 자신에 대한 존중 및 차이의 인정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킨다.

핵심 주제

- 사회와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신념, 언어, 전통, 종교, 생활방식, 종족성)
-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과 공동체 및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와 기능 함양(존중, 평등, 배려, 공감, 연대, 관용, 포용, 의사소통, 협상, 갈등 관리 및 해결,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정, 비폭력)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가 지닌 장점과 해결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핵심 주제

- 평화적 공존과 개인 및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 · 집단 · 사회 · 국가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
- 더불어 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체성(종족, 문화, 종교, 언어, 젠더, 연령) 및 다른 요소들
- 더불어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배제, 무관용, 선입견, 차별, 불평등, 특권, 기득권, 두려움, 의사소통의 부재, 표현의 자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균등한 경우)
- 다양한 정체성과 소속을 지닌 개인과 집단이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 대화와 협상, 갈등 관리의 기능을 연마하기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다양한 집단 및 관점에 대응하여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기능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핵심 주제

- 다양한 사회와 문화에서 살아갈 때 직면하는 도전과제와 상호의존성(권력 불평등, 경제적 격차, 갈등, 차별, 선입견)
-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들
-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다양한 기관의 활동(여성, 노동, 소수자, 원주민, 성소수자와 같은 국가적 · 국제적 운동)
- 소속된 공동체를 넘어선 존중과 공감이라는 가치 및 태도
- 평화, 합의 도달 및 비폭력의 개념
-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에의 참여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의 사회 · 정서적 영역인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중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을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하고, 모든 사람이 권리와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서로 같게 만들거나 다르게 만드는 요소를 살펴보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존재임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여기서는 서로 다름과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기능을 계발한다.

중학교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이 주는 이점과 과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정체성과 그 인자들이 더불어 사는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이 낳는 갈등과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 태도와 기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학습 주제 6은 같음과 다름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다름에 대한 이해, 다름이 주는 이점, 다양한 집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가치, 태도, 기능의 익히기 순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해 돕기

종족성(ethnicity)	종족집단을 구성하는 특성을 말한다. 종족성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첫째, 공통의 문화, 공유된 역사, 혈연 등과 같은 원초적 특질에 의해 구성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 종족성은 객관적이거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단이 처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형성된다는 정의도 있다. 종족과 종족성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ethnic group'을 현재 종족(집단)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제 그 의미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의미에 가깝다.

B.7 학습 주제
개인적 ·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핵심 주제

- 우리의 가정, 학교, 공동체, 국가와 세계를 좀 더 살기 좋게 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
- 함께 일하는 법 배우기(지역사회의 실제 문제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 예: 정보 수집 및 제시를 위해 타인과 협업하고, 결과와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사용하기)
-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skills)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개인 행동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핵심 주제

- 개인 · 지역 · 국가 및 글로벌 이슈 간의 관계
-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 행동을 통한 시민 참여 유형(옹호활동, 지역사회 봉사, 미디어, 투표와 같은 공식적 거버넌스 과정)
- 지역사회 개선과 전 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발적 단체, 사회운동, 시민의 역할
-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시민행동에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낸 개인과 단체(넬슨 만델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적십자/적신월사, 국경없는의사회, 올림픽)의 관점과 행동, 사회적 연결관계
-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해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개인과 단체가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찾아보고, 그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핵심 주제

- 행동을 취하는 개인과 단체의 역할과 의무 규정하기(공공기관, 시민사회, 자원봉사단체)
- 실천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분석하기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동 알아보기(정치적 과정, 미디어와 기술의 활용, 압력 및 이익집단, 사회운동, 비폭력 운동, 옹호활동)
- 시민참여의 이점과 기회, 영향력 알아보기
- 개인 및 집단 행동의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과 성공을 제한하는 요인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을 계발하여 적용한다.

핵심 주제

- 시민참여를 강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요인 분석(경제,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 및 여성, 소수민족, 소수종교, 장애인, 청년 같은 특정 그룹의 참여와 대의권을 가로막는 장애물)
- 중요한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을 표현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기(효과, 결과, 부정적 영향, 윤리적 고려사항)
- 지역과 세계의 이슈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환경, 평화구축, 동성애 혐오증, 인종차별)
- 효과적인 정치적 ·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술
  (비판적 탐구 및 연구, 근거 평가, 논리적인 주장 제시, 활동의 계획 및 실행, 협업, 행동의 잠재적 결과 성찰,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기)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행동적 영역인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중 개인적, 집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을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세계 발전을 위한 실천 행동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음을 배운다. 여기서 협력,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능을 학습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개인적 행동과 협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투표, 지지, 봉사 등과 같은 시민참여의 형태를 살펴보고, 시민 행동에 참여한 사례,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 국경없는 의사회 등을 알아본다.

중학교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참여한다. 시민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성찰하고, 시민 참여의 이점 및 그 영향을 살펴본다.

고등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을 계발하고 적용한다. 시민 참여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제약 요소를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실천해본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치적, 사회적 참여 기능을 살펴본다.

학습 주제 7은 더불어 사는 세계를 위한 실천 방법 알아보기, 실천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하기, 다양한 차원의 중요 이슈에 대한 행동 방안을 알아보고 참여하기, 시민으로서 효과적인 실천 방법을 계발하고 적용하기 순으로 심화되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슈에 대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고 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참여 방법을 계발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이해 돕기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편견을 갖고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인 경우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억압 행위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별 행위는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성애자들이 차별로 인해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B.8 학습 주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지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한다.

핵심 주제

- 우리, 타인, 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가치
- 개인 및 공동체의 (문화적 · 경제적) 자원과 빈부 및 공정/불공정의 개념
- 인간과 환경의 상호 연결관계
-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 기르기
-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타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논리적 근거 제시하기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핵심 주제

-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세계시민의 의미
- 공정성과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공정무역,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자원 접근성)에 대한 개인적 관점
- 전 지구적 차원의 불공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실례(인권침해, 기아, 빈곤, 성차별, 소년병 동원)
- 개인 · 학교 · 공동체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기술과 책임 있는 행동의 실행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사회정의 및 윤리적 책임과 관련된 해결과제와 딜레마를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 행동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핵심 주제

-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전 세계의 다양한 관점과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 가치관 및 기타 요인들
- 다양한 관점이 공정 · 불공정한 관행과 윤리적 · 비윤리적 관행에 끼치는 영향
-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시민참여(연민, 공감, 연대, 대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존중)
- 세계시민의 역할과 정치적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아동 노동, 식량안보, 정당한 행동 및 폭력 사용처럼 정당하지 않은 형태의 행동)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한 행동을 한다.

핵심 주제

-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정치적 운동이나 자원봉사, 지역사회활동, 자선단체 ·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것이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식
- 윤리적 질문이 개입되는 이슈(핵보유국 및 핵무기, 원주민의 권리, 검열, 동물 학대, 기업활동)
- 공정성 및 사회정의에 대한 다양하고 상충하는 관점을 조율하기 위한 해결과제
- 부당함과 불평등에 도전하기
-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실천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행동적 영역인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중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타인이나 지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 주로 개인의 선택이 타자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학습을 한다. 여기서는 글로벌 이슈를 공정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고, 세계적 불의(global injustice)의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중학교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과 관련된 딜레마를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주는 의미를 살펴본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보고, 이 관점들이 공정 · 불공정, 윤리적 · 비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파악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행동을 한다.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정치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윤리적 문제, 불공정성, 불의와 불평등성 문제를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다.

학습 주제 8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사회정의와 윤리적 책임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와 관련된 문제와 딜레마를 분석하기, 차별과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기 순으로 심화되고 있다. 즉 학습 주제 8은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 공정성, 차별 폐지 등의 관점에서 이슈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해 돕기

공정무역(fair trade)	세계 무역이 신장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윤리적인 무역이다. 공정무역은 선진국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 이 무역은 1950년대 영국의 옥스팜(Oxfam)이 중국 난민들의 수공예품을 팔아주면서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커피, 초콜릿, 여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	개인의 정당한 몫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희생시키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때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절차를 중시하는 입장과 실질(결과)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를 절차적 정의 또는 형식적 정의라고 하고, 후자를 실질적 정의라고 부른다. 사회정의에 대하여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모든 이에게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첫째 원칙이고,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둘째 원칙이다." –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B.9 학습 주제
참여하고 실천하기

유아 및 초등 저학년(5~9세)

학습 목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한다.

핵심 주제

- 개인적 · 집단적 시민참여의 이점
-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과 여러 조직(시민들, 소모임, 네트워크, 단체, 기관, 프로그램 및 계획 · 구상(initiatives))
- (학교, 가족, 지역사회, 국가, 지구적(planet) 차원에서) 지역 · 국가 · 세계적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때 아이들의 역할
- 시민성의 기본적 측면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 형태
- 대화와 토론에 참여
- 교외 활동에 참여
- 집단에 효과적으로 참여

초등 고학년(9~12세)

학습 목표: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을 시작한다.

핵심 주제

- 사람들이 기관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들이 제공하는 지식, 기능, 특성
- 변화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
- 단체와 기구의 역할(소모임, 네트워크, 스포츠팀, 조합, 전문가 협회)
- 프로젝트와 글쓰기 작업에 참여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활동에 참여
-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

중학교(12~15세)

학습 목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역량(skills)을 계발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행동한다.

핵심 주제

- 개인적 동기가 적극적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 결정과 행동을 이끄는 개인의 가치와 윤리
-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는 방법
-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 보편적 가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필수 지식 · 기능 · 가치 · 태도를 갖추고 적용하기
- 자원활동과 봉사를 통한 학습 기회
- 네트워크(동료, 시민사회, 비영리기관, 전문가 대표)
- 사회적 기업가정신
- 긍정적으로 행동하기

고등학교(15~18세 이상)

학습 목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제안하고 실천에 옮긴다.

핵심 주제

- 적극적인 세계시민이 되어 본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
-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에서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는 수요와 우선과제를 분석하고 찾아내는 데 기여하기
- 긍정적 변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배울 기회 갖기
- 다양한 행위자의 활동상 공헌과 영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기
- 의사소통, 협상 및 옹호활동을 위한 기능 연마하기
-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의견 표현
-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촉진

이 학습 주제는

세계시민교육에서 행동적 영역인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중 행동에 참여하고 실천하기를 계발하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이점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서는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소중함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알아보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찾고,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중학교에서는 능동적 참여 기능을 계발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이를 실천한다.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지역의 글로벌 이슈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위한 행동을 살펴보고, 긍정적 변화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는 능동적인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학습을 하고, 변화를 위한 각종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학습 주제 9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알기, 시민참여의 기회를 찾기, 능동적 참여와 실천 방안을 찾기, 긍정적 변화를 위한 행동하기 순으로 심화되어,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각종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을 찾아서 실천에 옮기도록 한다.

이해 돕기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국가와 기업이 아닌 영역에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의 요건은 공적 조직성, 비영리성, 비정부성, 공익성, 자율성(자치성), 자발성 등이 있다. 비영리기구(NPO)는 비정부기구(NGO)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기에 비정부기구보다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 두산백과

도표 C: 핵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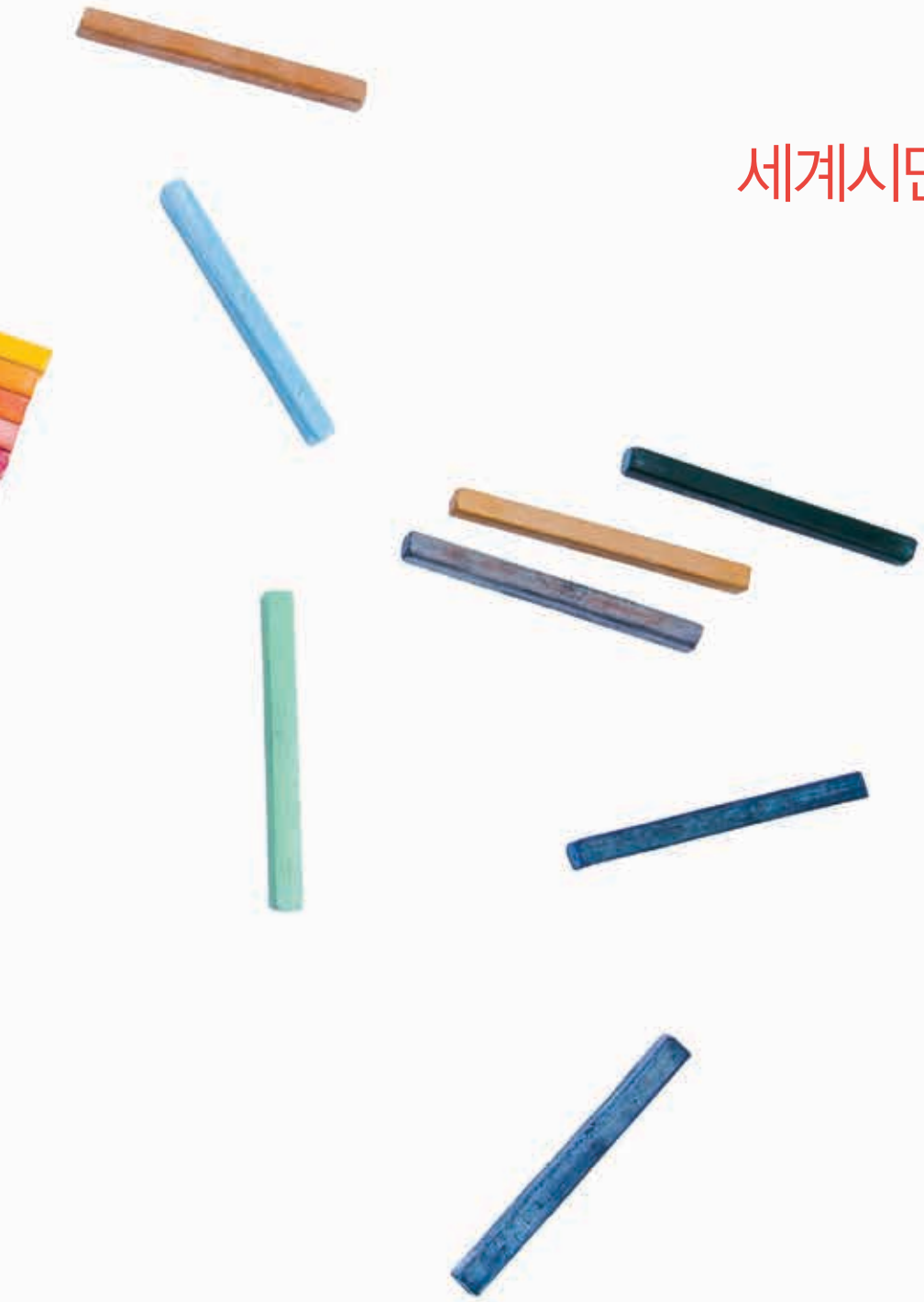
아래에 제시된 핵심어는 주제별로 구분되며, 대부분 앞에서 설명한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중 하나 이상과 연관된다.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나 특정 상황 관련 이슈, 특히 한국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도 추가할 수 있다.

세계 및 지역의 이슈와 이러한 이슈들 간의 관계/ 지역 · 국가 ·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구조/ 상호작용 및 연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 시민성, 고용, 세계화, 이민, 상호연결, 상호의존, 이주, 이동성, 남반구–북반구의 관계, 정치, 권력관계 ■ 사법접근권, 의사결정, 민주주의, 민주적 절차, 식량안보, 바람직한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성평등, 인도주의법, 평화, 평화구축, 공익, 책임, 권리(아동의 권리, 문화적 권리, 인권, 원주민의 권리, 교육권, 여성인권), 법치주의, 법규, 투명성, (개인과 집단의) 행복 ■ 잔학행위, 난민신청자, 아동 노동, 소년병, 검열, 갈등, 질병(에볼라, HIV 및 에이즈), 경제적 격차, 극단주의, 학살, 전 세계적 빈곤, 불평등, 무관용, 핵보유국, 핵무기, 인종주의, 난민, 성차별주의, 테러리즘, 실업, 불균등한 자원, 폭력, 전쟁 ■ 시민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국적 기업, 민간부문, 종교적 대 세속적, 이해관계자, 국가책임, 청년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재난 위험 감소, 긴급상황, 긴급 대처, 환경, 자연재해, 지속가능발전, 수질 ■ 지리, 역사, 식민주의의 잔재, 노예제도의 잔재, 미디어 문해력, 소셜 미디어
정체성과 관계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	■ 공동체, 국가, 디아스포라, 가족, 원주민, 소수자, 이웃, 학교, 자아와 타자, 세계 ■ 태도, 행동, 신념, 문화, 문화다양성, 다양성, 젠더, 정체성(집단 정체성, 문화 정체성, 성 정체성, 국가 정체성, 개인 정체성), 문화간 대화, 언어(이중언어사용/다중언어사용), 종교, 섹슈얼리티(sexuality), 가치체계, 가치관 ■ 배려, 동정, 관심, 공감, 공정성, 정직성, 진실성(integrity), 친절, 사랑, 존중, 연대, 관용, 이해, 지구촌에 대한 관심 ■ 권리의 요구, 의사소통, 갈등 해결, 대화, 포용, 문화간 대화, 삶의 기술(life skills)*, 차이 관리(예: 문화적 차이), 변화 관리, 중재, 협상, (국제적, 지역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술(skills), (갈등, 집단 괴롭힘, 폭력의) 예방, 관계, 화해, 변화(transformation), 모두에게 유리한(win–win) 해결책 ■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과 소속 여부로부터 비롯한 차별 ■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집단 괴롭힘, 동물학대 등)
참여, 행동과 윤리적 책임	■ 소비 습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질문, 윤리적 책임, 공정무역, 인도주의적 조치, 사회정의 ■ 기업가정신, 재정관리기술, 혁신

* **삶의 기술(life skills)**은 국제사회 교육 및 개발 의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보편적으로 동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정의를 정리해 보면, 개인이 일상생활의 요구와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적응적 · 긍정적 행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 행위 주체로서 정체성을 계발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개인 기술(personal skills),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기술(interpersonal skills)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되기도 하고, 일터나 일상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생활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 행위, 태도 및 가치의 혼합체로서 오늘날 현실의 맥락에서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조직 능력, 사회성 및 의사소통 기술, 적응력, 문제해결력, 민주주의에 기반한 협동능력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3.1 교육제도에의 통합 방안

세계시민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교육제도, 학교 및 교육과정, 교사의 역량, 학습자들의 다양성과 요구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 정치적 · 경제적 맥락들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교수 · 학습의 성공적 실행에 기여하는 몇 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에 기여하는 요인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광범위한 교육 관계자들의 지원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계획
-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소주제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총체성 담보
- 세계시민교육을 매 학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교 수업을 통한 지속적인 재강화
- 교육 내용 및 접근에 있어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 모두를 포괄성 있게 다룸
- 예비교사 연수 및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통한 지원
- 교육 내용, 전달방식 및 형식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개발 및 실행
- 발전이나 확대에 있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 · 수준으로만 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통한 피드백
- 실행 과정에서 정기적인 검토와 필요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협업 구조에 기반

출처: Education Above All (2012). 『글로벌 시민교육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한국의 경우 교육정책의 잦은 변화,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는 국가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속에서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행에 있어서는 현장교사들의 자발성을 살려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예비교사 교육과 교원 직무연수를 통한 지원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지와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실행 및 지원 전담 부서를 둘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지침을 기반으로 인정 교과서의 개발 등을 촉진할 수 있다. 각 시도연수원과는 협업 체제를 마련하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단위 선도요원 및 강사요원의 양성을 통하여 내용과 사례를 공유할 것이 요청된다.

3.1.1 교육과정 내 교육목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발달시켜야 하는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을 결정하고, 세계시민교육의 실행 및 평가에 관한 결정 사항을 도출해는 데 필수적인 첫 걸음이다. 유네스코 지침서에서도 제시하듯이 세계시민교육이 전반적으로 추구하는 학습 목표들이 있지만, 이러한 학습 목표들을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기존 과목들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이 자세하게 명시된 국가교육과정의 구조나 내용에 바로 접목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지침서가 제시하는 학습 목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연관 과목의 각론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침을 제시하거나 학습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재구성한 학교단위 또는 학급단위 교육과정이나 수업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다만 후자는 교사의 역량과 경험, 학교의 지원, 실행 학급이 기존 시험 등으로부터 받는 압박의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 교육과정과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각론에서 다룰 만한 구체적인 학습 목표보다는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교육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목표는 각 나라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역량으로 표현되는데, 이 장에서는 한국의 국가교육과정 총론 내용 중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정리 7: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 비교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위의 두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현재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다.[7]

정리 8: 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의 의미

자주인 (self-directed person)	창의인 (creative person)	문화인 (cultivated person)	세계인 (global-minded person)
지덕체의 고른 발달, 개성의 발휘, 진로 개척, 자기 주도성 등	기초능력 구비,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독창성,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 등	다양한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삶의 질 추구 등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지구 공동체 문제 해결, 인류 공영, 배려와 나눔 등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그 의미 가운데 유네스코 교수학습 지침서(이하 유네스코 지침서)와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은 다(문화인)와 라(세계인) 항이다.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강조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한국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유네스코 지침서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상당부분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다만, 유네스코 지침서의 핵심 영역에서는 지역 · 국가 · 범지역 · 세계적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명시하여 단순 참여보다 구체적 행동에 무게를 두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총론과 유네스코 지침서의 핵심영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에서 좀 더 선명하게 구체화된 개념은 비판적 사고, 존중과 연대, 사회적 행동이다.

한국의 국가교육과정, OECD,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또는 학습 영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기존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더해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가지를 제시한다. 네 가지 분류는 모두 OECD 핵심역량과 유네스코의 인지적, 사회 ·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념화와 내용을 보면 한국교육과정 총론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유네스코 학습 영역은 학습자에 대해 보다 총체적(holistic)인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OECD 핵심역량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학습에 대해 개인적이고 기능적(機能的, functional)인 접근을 보인다.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 영역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총체적인 인간이며 사회관계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7. 2009 개정교육과정 해설자료 참고

정리 9: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역량, 학습 영역 간의 비교

2009 개정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OECD 핵심역량 (PISA, 2003)	유네스코 학습 영역 (유네스코, 2015)
개성의 발달과 진로 개척,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역량	**도구의 상호작용적 이용** 언어나 상징, 텍스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상호작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인지적 영역** 세계와 그 상호 연계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력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 이해로 품격 있는 삶 추구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이질 집단에서의 상호교류 능력**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협동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사회 · 정서적 영역**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한 인류애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적 역량	**자율적 행동 능력**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으며 생애 계획과 개인적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권리와 흥미, 한계와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행동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 · 국가 · 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

※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은 일부 어휘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학습 목표와 함께, 국가교육과정은 지역 및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중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관련이 있는 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사.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 자.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며,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8]이 시행된 바와 같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

8. 인성교육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2조)"으로 정의하며, "핵심 가치 · 덕목"을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으로 정의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462&efYd=20150721#0000

한편,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목표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연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리 10: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학급별 교육목표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바른 인성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3)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4)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중학교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고등학교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초등학교에서는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을, 중학교에서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고 기술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는 말이 등장한다. 즉,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공감, 협동, 배려 등의 덕목 중심으로 기술하고, 중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언급한다. 학교 급별로 시민성 교육의 개념과 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공감, 협동(초등학교),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중학교), 세계시민의 자질과 태도(고등학교)는 분리될 수 없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식, 이해 및 가치와 태도의 구현 방식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의 초 · 중등 교육과정 수준에서 볼 때 교육과정 구성원리로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과정 문서상의 수정 및 보완이 향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요소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모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이념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성교육의 정의를 통해서 본 핵심 가치 · 덕목이나 핵심역량 등에는 개인의 심성 함양을 넘어 시민성의 영역에서 조명해야 할 덕목이나 역량이 명시되고 있다.

인성교육이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함양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 가치와 책임의 공유, 지역 · 국가 · 범지역 · 세계적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기존 인성교육은 그 역량 범위를 확장하여 세계시민의 핵심영역과 결합하여 운영될 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독립된 꼭지를 신설하였다. 이는 교육 공공성의 측면에서 출신이나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글로벌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진일보한 교육과정 지침이라 할 수 있다.[9]

이는 1990년 유네스코가 태국 좀티엔에서 개최한 세계교육회의 결과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과 같은 맥락이며, 이후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의 『교육 2030(Education 2030)』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교육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원칙인 '포괄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부합하며 반차별, 문화다양성 등의 글로벌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교육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한다는 지침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9.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p.35 참조.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jsessionid=61317B911C93A11537F9FA666BDA13F3?sortBy=degree&degreeCode=1012

국가별사례

호주 교육과정은 세 가지 범교과적 고려 사항 및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7가지 보편적 역량을 포함한다. 범교과적 고려 사항에는 지속 가능성, 아시아와 호주 간의 연결 관계, 호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가 포함되며, 보편적 역량에는 문해력, 산술 능력, 정보통신기술(ICT) 능력, 비판적 · 창의적 사고, 개인적 · 사회적 능력, 문화 간 이해, 윤리적 행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은 교과과목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콜롬비아 교육과정은 언어, 수학, 과학 역량, 시민역량이라는 네 가지 핵심역량 계발을 목표로 한다. 시민역량은 타당한 논증, 타인에 대한 배려, 의사소통 기술, 행위에 대한 성찰, 지식, 교실과 학교 및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등을 포함하며, 범교과적인 방식으로 계발된다. 3, 5, 7, 9, 11학년에 기대되는 학습은 더불어 살기와 평화, 민주적 참여, 다양성이라는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항목은 인지적 · 정서적 · 의사소통적 · 통합적 역량과 관련된다. 분권화된 학교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학교마다 나름의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http://www.mineducacion.gov.co/1621/articles-340021_recurso_1.pdf

인도네시아 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핵심역량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직한 행동, 책임감, 관용과 상호 이해와 같은 배려를 통한 사회적 태도를 다룬다.

필리핀 2012/2013학년도에 도입된 K-12(초 · 중 · 고) 교육과정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시작했다. 특히, '전인적 접근'을 통한 미디어 · 정보 문해력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한다. 세계시민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치교육은 자아존중감, 타자와의 조화, 애국심, 국제적 결속 및 연대감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한국 국가교육과정에서 관용, 공감능력, 문화소양처럼 관련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은 중앙정부(교육부), 지방정부(시 · 도교육청), 학교 간의 3자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자유 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튀니지 2000년 학교교육과정에 역량기반 학습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 전반에 도입하고자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학교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여성의 권한 및 성평등을 강조하는 개정 시민교육과정은 국제 및 지역간 협력기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Union for the Mediterranean, 2014).

3.1.2 실행 방식

정규 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학교 전반 교육과정에 편성, 범교과 주제로 제시, 기존 교과에 통합, 독립 교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호보완적이며 함께 적용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입안자 및 교육 기획자들은 각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은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과정 내의 우선사항, 이용 가능한 자원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범교과학습, 지역과 함께하는 현장학습,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통합 학습, 계기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협동, 창의성 및 인성 형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이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전반 교육과정에 편성: 유네스코 지침서에서는 '전 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 또는 학교전반에 걸친 적용 및 활동들을 논하고 있는데, 학교 전반에 걸친 접근으로는 관련 기존 교과의 모든 학교 급별 수준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학교교육과정을 짜는 방법, 참여학습을 범교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국제기념일과 관련된 학교 차원 활동, 학교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 캠페인, 실천과 활동 중심의 동아리 운영, 지역공동체–학교 연계 활동, 학교간 교류활동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학교 전반에 걸친 반영을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한 사례로는 잉글랜드의 "학교교육과정에 글로벌 차원 담아내기(아래 참조)"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범학교, 연구학교, 거점학교, 혁신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체계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국가별사례

잉글랜드의 교육기능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는 교장, 교사, 고위 간부, 교육과정 개발 관련자들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글로벌 차원 담아내기(Developing the global dimension in the school curriculum)'**을 발간했다. 이 출판물은 교육과정과 학교 전반에 어떻게 글로벌 차원을 통합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세계시민, 갈등 해결, 다양성, 인권, 상호의존성, 지속 가능개발, 가치와 인식, 사회정의라는 8가지 핵심 개념을 토대로 3~16세의 학습자들에게 글로벌 차원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사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세계 아동들의 사진에 대한 토론, 다양한 활동, 이야기, 학생들이 방문했던 다양한 장소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어린 학습자들의 개인적 · 사회적 · 정서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별도의 중앙 ·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전반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위한 정책 및 교육과정상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 학교 · 학생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 ·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에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10]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지침[11]을 최소의 기준으로 삼아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과 신념, 그리고 전 교직원의 공동 사고와 참여 속에 창의성을 발휘해 특색 있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과정은 모든 교원이 참여하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내용은 물론이고 학습의 방법 역시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심신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의 조정(비차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문화다양성), 성 구분 및 학력과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기, 범교과학습 주제를 다룰 때,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기,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을 세계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전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인 셈인데, 이는 세계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 안착하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범교과 주제로 제시: 한국 교육의 맥락에서 '범교과 주제'라는 측면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주제중심 통합학습"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범교과 학습 주제의 경우,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서는 국제이해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을 가장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영역이며, 그 외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도 직접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다룰 수 있는 주제영역이지만, 기타 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경제교육, 환경 교육, 의사소통 · 토론중심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물 보호 교육, 청렴 · 반부패 교육 등에도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들을 녹여낼 수는 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은 기존 39개 범교과학습 주제를 10개 범주[12]로 통합 · 조정하였다. 이로써 교육 내용 및 접근에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가장 근접한 국제이해교육이 누락되

10. 『2009 개정교육과정 해설자료』 참조.
11.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 중 학교 급별 편성과 운영 부분 참조.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jsessionid=DF6B219D563A954F3DC829A22705205A?sortBy=degree&degreeCode=1010
12. 안전 · 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 · 금융 교육, 환경 · 지속가능발전 교육.

어 아쉽기도 하지만, 여전히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환경지속가능교육과 연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및 문화다양성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여러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교과학습 주제에 포함 유무를 떠나서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에 담겨 있으므로, 이미 세계시민교육의 범교과적 중요성은 교육과정 내에 담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중심 통합학습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담임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여러 교과 교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 주제중심으로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 "주제"는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말하는 주제영역보다 더 구체적인 하위 학습주제나 소재에 가까운데, 유네스코 지침서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나 핵심 주제 또는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주제중심 통합학습을 구성하는 것도 간학문(inter-disciplinary)을 지향하는 세계시민교육의 바람직한 실행방법 중 하나라고 하겠다.

기존 교과에 통합: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은 사회, 환경, 지리, 역사, 도덕, 과학, 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에 구체적인 학습요소로 반영되거나, 기존 과목의 학습요소와 연계한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의 함양이 촉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에 '지구 공동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세계시민윤리', '세계시민주의',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세계시민적 관점/지구촌적 시각',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가치규범과 시민윤리에 기초한 범세계적 노력', ' 전 지구적 문제',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이 이미 주제, 학습요소, 성취기준 등에 빈번하게 등장한다.[13] 또한, 과학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가 목표 및 내용 요소에 강조되어 있다. 한편, 기존 교과에의 통합을 세계시민교육이 배양하고자 하는 가치, 태도, 기능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시각 예술과 음악, 문학을 포함하는 예술 과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표현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소속감을 발달시키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및 이해가 쉬워질 수 있다. 또한, 예술 과목은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한 비판적 탐구 및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고, 체육 과목은 학습자가 팀워크, 다양성, 사회적 결속, 공정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어, 문학, 언어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학습자 특성인 비판적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더없이 중요한 과목이고 다양한 관점과 문화도 소개할 수 있는 과목이므로 이러한 과목들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설계나 학습자료들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13. 2015 개정교육과정 각론 참조.

독립 교과로 운영: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별도의 교과로 다루기도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 존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한국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인 국제이해교육을 한 학기나 한 해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실행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독립 교과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완전히 독립된 교과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포화상태인 교육과정에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며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주제나 요소를 기존 교과에서 상당 부분 다루고 있으므로, 학습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이 기존 교과에 녹아 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기존 교과에서 깊이 이해하거나 논의하기 어렵거나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체험, 활동, 프로젝트형 학습이 어려울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14]에 세계시민교육을 독립 교과처럼 편성하여 심화과정이나 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교과와의 연계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하든, 범교과 주제로 다루든, 기존교과에 통합하든,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기존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하나의 독립교과처럼 설계 · 실행하든 간에, 이 모든 접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해당 교과 학습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교육 핵심영역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교사가 단독으로 재구성에 대한 설계를 할 수도 있으나 교사들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 교과간 연계수업을 할 수도 있으며 협력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세계시민교육의 속성에 맞게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도 권장된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 이들이 글로벌 이슈와 세계시민성을 익히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유튜브(Youtube) 등 개방적 플랫폼에 세계시민교육 채널을 구축하여 무형식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sortBy=degree&degreeCode=1012

국가별사례

액티베이트(Activate)는 사회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젊은 지도자들이 모인 단체이다. 다양한 배경과 지역 출신의 젊은이들이 2년짜리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어 첫 해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세 가지 거주지역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 해에는 특정 과제 실행그룹을 결성해 해당 활동을 공적인 차원에서 전개한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이 범죄조직에 합류하거나 약물을 남용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설명하면서, 범죄조직 활동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감옥에서 7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아공에 대한 나의 비전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누군가의 역할모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진짜 너 자신이 되어 너의 꿈을 좇아라."
http://www.activateleadership.co.za/blog/5-mins-with-fernando#sthash.dRCXMqPx.dpuf

하이 리졸브(High Resolves)는 젊은이들을 위한 호주 유일의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인 호주청소년재단(FYA, Foundation for Young Australians)에 의해 실행되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교육계획으로, 8학년을 위한 세계시민 프로그램과 9, 10학년을 위한 세계시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획은 학생들이 워크숍, 모의실험, 리더십 기술 훈련, 직접적인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를 세계적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개인적 역할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120개 학교에서 8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005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한 예로, 2013년 학생들은 장애인권, 인신매매, 난민수용, 해양보존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http://www.highresolves.org http://www.fya.org.au/inside-fya/initiatives/high-resolves

피스 퍼스트(Peace First)는 **미국**의 비정부기구로, 청년 봉사자들이 아동들과 함께 공동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 타고난 것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자기인식, 공감능력, 포용력, 인간관계의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콜롬비아 비정부기구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피스 퍼스트는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왔는데, 이 교육과정은 체험활동과 협동게임을 통해 우정, 공정성, 협력, 갈등 해결, 실천의 결과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1학년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3학년은 의사소통과 협동심에 대한 인식과 기능을 함양하고, 4학년은 용기 있게 실천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며, 5학년은 갈등을 점차 줄이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http://peacefirst.org

3.1.3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세계시민교육 실행하기

한국의 경우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의 팽창, 과잉된 교육열, 암기 및 주입식 교육 등은 여전히 학습자 간 협력과 공존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교사들은 행정업무의 과다와 엄격한 교과 구획으로 교사간 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평가 방식의 혁신, 민주적 학교 문화의 구축, 질문이 있는 교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나 지역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이 선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학교나 교실 단위에서 여전히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앞서 논의했던 국가교육과정이 관련 과목의 경우 교과 수업에서도 녹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때 관건은 교사의 의지, 교과수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숙도,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장의 강한 비전과 의지로 시작되어 세계시민교육이 전 학교적으로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성공 사례의 경우 반드시 교사나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의 과정이 담보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협동학교(UNESCO ASPnet)와의 협력, 협동학교 간의 협력도 환경적 제약들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한편,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도시에서는 학교 공동화 현상에 따른 정책 실행, 농산어촌에서는 작은 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의 감소는 학교 단위 유휴교실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 교실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등의 체험학습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공간의 환경구성, 여기서 이루어질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콘텐츠와 활용 방안이 보급돼야 한다.

아울러 학습수행 방법 역시 세계시민성의 방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단일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학습을 확장하여 세계 여러 나라 교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플랫폼(부록 참조)을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할 수 있다.

3.2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방안

3.2.1 교육자의 역할 및 교육자 지원 방안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영역 및 사회 ·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내용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교실과 학교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감하기,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 교수 · 학습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숙련된 교육자를 필요로 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자들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연수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은 교과와 교실을 넘어 학교와 지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때 더욱 활성화된다.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일련의 글로벌 교육 의제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교육부는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하나로 시도교육청 및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중앙 및 시도)를 선발, 역량강화 연수 등 지원체계를 수립하였다. 향후 교사들 스스로에 의한 주도적이고 지속성 있는 역량강화와 수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화연수와 함께, 교사 연구회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전담 부서를 두고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세종교육청 등에서도 기존의 인성교육에 더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인정도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독립교과로서 기능하거나 다양한 교과와 통합하여 보조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 녹아 들어 각 교과에서 다양한 주제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교과 간의 분절화와 높은 벽은 이것의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주제통합학습이 활성화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방향 및 사례, 방법을 전파할 전문가 및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를 양성해야 한다.

3.2.2 학습 환경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인 학습 환경은 세계시민교육의 실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는 학습자가 건전한 상호작용과 차이에 대한 존중, 문화감수성과 관용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며, 질문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상호신뢰와 존중이 기저에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수 · 학습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열의와 동기부여도 이끌어내게 된다.

교사와 학습자는 인지, 사회 · 정서, 행동 영역의 내용과 방식이 동시에 학습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규칙과 합의를 통해 교실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시민성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며 학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게시물의 활용, 자리의 배치, 역할 부여 등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영역이 통합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고려하며 학습자의 책임 있는 참여와 표현을 존중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국가별사례

시에라리온에서는 2008년 교육부와 국가교사양성기관들(nation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이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라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습 내용과 교수법을 활용하여 분쟁 후 재건 지원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인권, 시민성, 평화, 환경, 성(性)과 생식에 관한 건강(reproductive health), 약물남용, 성평등, 재난 관리와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교수 · 학습 방법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연수를 위한 강좌와 심화 · 원격 직무연수 자료가 개발되었다.
http://learningforpeace.unicef.org/resources/sierra-leone-emerging-issues-teacher-training-programme/

스리랑카에서는 사회통합과 평화를 위한 2008 국가교육정책(The 2008 National Policy on Education for Social Cohesion and Peace) 시행과 더불어, 스리랑카 교육부와 독일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GIZ)가 마련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Social Cohesion, ESC)**'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9개 지방 중 5개 지방의 시범학교 200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 이 5개 지방은 분쟁 후 매우 소외되었고 다양한 언어를 대표하고 있어 'ESC 활동이 동일한 기치 아래 실험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ESC 활동은 평화와 가치교육(value education), 다언어 교육, 심리사회적 배려와 재난 방지라는 네 가지 분야를 다루며, 학생 참여와 교사 및 행정가 대상의 연수와 지원에서부터 질적, 양적 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학교 전반의 발전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시범학교들은 '학교 전반의 활동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https://www.giz.de/en/worldwide/18393.html

3.2.3 교수 · 학습 실천

실질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및 교실에서 실행할 때 교수학습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보다 구체적인 교수 · 학습 실천 방안이나 유의점은 각 나라의 교육과정과 각 학교 및 교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겠지만, 유네스코 지침서는 아래와 같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수 · 학습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교수 · 학습 실천 방안

- 타인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교실 환경과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 성평등, 포용성, 교실 규범에 대한 합의, 학생 의견, 자리배치, 공간 활용 등)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내포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 독립성과 상호작용 · 대화를 지향하는 교수 · 학습 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학습 목표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예: 독립적 · 협동적 학습, 미디어 문해력)
- 실제 과제를 수행한다.
  (예: 아동 인권에 관한 전시 기획 · 실행, 평화구축 프로그램 만들어보기,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학생신문 발간)
- 학습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세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차원의 학습자료를 활용한다.
  (예: 다양한 자료와 미디어 활용, 비교적 관점과 다양한 관점)
- 학습 목표 및 학습 지원에 활용되는 교수 형태와 일치하는 평가 전략을 사용한다.
  (예: 자기성찰과 자기평가, 동료 피드백, 교사 평가, 저널, 포트폴리오)[15]
- 교실, 학교, 지역사회 등 지역에서부터 글로벌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 지역사회 참여, 온라인상의 국제교류, 가상공동체)
- 역할 모델로서의 교사/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 사회 현안의 최신 정보 파악, 지역사회 참여, 환경 및 평등(equity) 관련 규범의 실천)
- 학습자와 그 가족을 교수 · 학습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다문화적 환경에서는 더욱 필요하다.[16]

출처: Evans, M. et al. (2009).'캐나다 시민교육의 글로벌 정도의 측정: 이론과 실천 및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 Mapping the 'global dimen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Canada: The complex interplay of theory, practice, and context',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5(2), 16–34.

15. 한국 교육과정 맥락에서는 수행평가라고 볼 수 있다.
16. 학습자와 그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의 관점,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의미가 크고, 추상적일 수 있는 학습내용을 구체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와 그 가족 등을 교수 · 학습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들의 자발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적 환경에서 활용할 때에는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설계가 필요하고, 사전에 해당 학습자나 그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선정된 교수 · 학습 실천방안은 의도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학습활동과 과제, 기대 역량 및 학습 목표가 서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급 토론, 기사를 읽거나 영상을 본 후 질문에 대답하기와 같은 학습 활동은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적 기술 함양, 가치 탐구, 지식 습득, 실제적 역량 계발을 장려하고자 설계된 것이다. 또한, 그룹별 조사, 이슈 분석, 문제기반학습, 사회적 행동 취하기와 같은 좀 더 복합적인 교수 · 학습 방안은 구체적으로 연결된 범주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현실과 직결된 과제나 실제 활동(글로벌 이슈 관련 연구 프로젝트, 지역사회 봉사활동,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 온라인 국제청년포럼 등)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역량 계발에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프로젝트 학습, 자유학기제의 여러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영역과 연결지으면서 지식을 연속적으로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 세계시민은 자유의지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현실의 여러 문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습방법이나 시스템, 자원의 지원에서도 학습자의 자유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일상화된 한국 상황에서는 다양한 단말기와 시스템을 활용한 사진, 영상, 텍스트의 제작 및 SNS의 교육적 활용[17]을 결합하여 학습자 친화적 콘텐츠의 생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를 지향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개발 등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교수 · 학습 자료가 '서책'에 머무르지 않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과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교과서만이 아니라, 워크북, 워크 시트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개발, 보급될 것이므로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18]

---

17. 예를 들어 ePals는 글로벌 학습커뮤니티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교사/학생)는 자신의 학교, 교과, 학급 정보를 입력하고 다른 나라의 협력교실을 찾아 연결한다. 연결된 교사들은 제시된, 혹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젝트 학습 주제를 공동으로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공유한다. 주로 생태, 분쟁, 지구온난화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학습할 수 있다. 교사안내 페이지에서 활용방법을 먼저 익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http://www.epals.com
교사 안내 페이지|http://www.cricketmedia.com/teacher-resources/teacher-guides/
18. 『2009 개정교육과정 해설자료』 참조.

국가별사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계획한 **온라인 수업교류 프로젝트(Connecting Classrooms)**는 세계 곳곳의 교실 간에 관계를 맺어주는 프로젝트로, 학습자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계발하며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세계적 이슈에 대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서로 다른 교육제도를 배울 수 있으며 전반적인 수업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시골 지역인 링컨셔(Lincolnshire)의 한 초등학교와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 초등학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은 스카이프(Skype)로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다. 시리아의 계속되는 내전으로 베이루트 학교에는 레바논 학생과 팔레스타인 학생뿐 아니라 시리아 난민 학생들이 많은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두 학교의 학생들은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하였고, 베이루트 학교 내 다양한 공동체 간의 공감대도 증진되었다.
https://schoolsonline.britishcouncil.org/linking-programmes-worldwide/connecting-classrooms/spotlight/Lebanon

잉글랜드 슬라우(Slough)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인도** 델리 지역의 한 학교와 자매결연을 시작했다. 슬라우 지역 학교 학생의 90% 이상이 남아시아 출신인데, 두 학교의 결연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적 뿌리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하여 1:1 연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참가 학생들과 교사들은 대화를 지속하고 세계적 관점을 함양하였다.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30401151715/
http://education.gov.uk/publications/%20eorderingdownload/1409-2005pdf-en-01.pdf

국제교육자원네트워크(iEARN,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ource Network)는 140여 개 국가의 약 30,000개 학교와 청년기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사와 청년들은 인터넷 등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협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iearn.org/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는 스코틀랜드와 나이지리아에서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이지리아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 지역과 스코틀랜드 애버딘(Aberdeen) 지역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 두 지역의 주요 산업인 오일, 가스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트 하코트 지역 학생들은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 정치적 영역에 오일이 끼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고, 애버딘 지역의 학생들은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설명하고 post-2015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된 만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
http://www.powerpolitics.org.uk/resources

테이킹잇글로벌(TIGEd,TakingITGlobal for Educators)는 약 125개 국가의 4,000개 학교와 11,000명의 교사 간의 네트워크로서, 협업을 통한 국제학습프로젝트 활동과 디지털 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안전하고 광고 없는 가상교실 플랫폼 실행에 관심 있는 교육자들의 공동체이다. 세계시민, 환경관리, 학생의견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전 지구적 난제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지원받는데, 세계시민성과 환경관리, 학생들의 발언을 다루는 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와 화상세미나, 워크숍이 제공된다. 구체적인 세계적 이슈에 대한 혁신적인 교수 · 학습 방안을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세계 교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사가 교사를 위해 개발한 이슈 중심의 국제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세계청년행동네트워크(The Global Youth Action Network)에서는 청년운동과 그들의 액티비즘을 지원하기 위한 클리어링하우스도 제작하였다.
http://www.tigweb.org http://www.youthlink.org/gyanv5/index.htm

튀니지 정부, 아랍인권연구소, 지역의 비정부기구, 유엔기구 간의 공동계획에 따라 **튀니지**는 24개 초 · 중등학교에 인권 및 시민성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민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참여적 교수법을 통해 교양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심어주고 인권 및 시민성의 가치와 원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동아리는 튀니지의 가난한 지역인 멜라신(Mellassine)에 있는 밥 할레드(Bab Khaled) 초등학교에 세워졌다. 이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은 교정(校庭) 관리와 지역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민참여역량을 계발하고 지역공동체의 삶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launch_of_the_first_citizenship_and_human_%20rights_school_club_in_tunisia/#.VDoyblFpvJw

3.3 학습 성과 평가 방안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 평가는 사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가치,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학습결과에 치중하기보다 학습자의 수행,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력과 활동 및 표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계시민교육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에서의 기대 목표치 대비 학습자의 향상 여부와 성취도를 기록한다.
- 학습자에게 학습 향상도에 대해 알려주고, 학습자들의 강점과 향상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학습목표를 세운다.
- 성적을 매기는 데 지침을 주며, 학습자의 학업 및직업에 관한 진로 지도를 돕는다.
- 수업의 계획 · 실행 ·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수업 프로그램과 교수 과정의 성공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에서의 평가를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종합적인 평가를 기획할 때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학습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학습자에게 성공적인 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을까?
- 학습자의 이해도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토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 학습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

세계시민교육의 속성상 학습자의 단기적 변화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학습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삶 속에 발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은 교수자 및 학습자의 반응이나 만족도, 핵심영역과의 연계 정도 등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및 모니터링 로드맵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한편, 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IEA)에서 운영하는 국제 시민교육 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에서는 시민윤리 및 시민의식과 관련된 학습자의 성향과 태도를 평가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상당한 학습 성과를 보였고 급격히 변화된 세계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나 참조할 만하다.

국가별사례

플랜인터네셔널(Plan International)과 멜버른 대학의 청년연구센터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과정에 착수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지역공동체의 아동들과 호주 학생들을 연결하여,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공동체가 직면한 이슈를 광범위한 글로벌 이슈와 연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08~201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과 이해, 또 이와 관련된 능력 개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특히 '장기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상당한 학습 성과를 보였고, 급격히 변화된 세계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냈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IEA)에서 운영하는 **국제 시민교육 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에서는 학습자의 지식과 개념적 이해에 대한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시민윤리(civics) 및 시민성과 관련된 학습자의 성향과 태도를 평가한다. 교사와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이 시민윤리와 시민성에 대해 학습하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여기에는 교수법과 수업 관리 방법, 학교의 운영 방식과 분위기가 포함된다. ICCS에서는 2009년 8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평균 나이 13.5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시민윤리와 시민성 관련 개념과 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신념, 태도와 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록

부록 1: 주요 정보원 및 참고문헌

주요 정보원

유네스코 편, 2015,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파리

[원문 · 영어]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9/232993e.pdf

[번역본 · 한국어] 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70

[프랑스어]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32/233240f.pdf

[스페인어]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38/233876s.pdf

[러시아어]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9/232993r.pdf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NCIC) ncic.go.kr

유네스코 본부 세계시민교육 섹션 en.unesco.org/gced

유네스코세계시민교육클리어링하우스 www.gcedclearinghouse.org/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www.unescoapceiu.org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http://www.globaleducationfirst.org/

교육 2030(Education 2030)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ED/ED_new/pdf/FFA-ENG-27Oct15.pdf

참고문헌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sortBy=degree&degreeCode=1010

2009 개정교육과정 해설자료 http://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http://ncic.re.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degreeCode=1012&classCodes=1002,1003,1004,1016&openYear=2015&openMonth=09

이상수, 2005, 『Basic 고교생을위한사회용어사진』, 신원문화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 번역, 2014,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원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62&page=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 · 번역, 2014,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원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http://unescoapceiu.org/board/bbs/board.php?bo_table=k412&wr_id=63&page=2

한경구 · 김종훈 · 이규영 · 조대훈, 2015, 『SDGs 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방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Barry K. Beyer, 1985, "Critical thinking: what is it?", *Social Education* 4: 270-276.

Rokeach, Milton, 1968,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A Theory of Organiz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s

부록 2: 유네스코 지침서에 수록된 주요 사례 및 자료

학급 교육과정 자료(Classroom and curriculum resources)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https://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

Breaking the Mould.https://www.teachers.org.uk/educationandequalities/breakingthemould

Bryan, A. and Bracken, M. 2011. Learning to Read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about Global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Post-Primary Schools. Dublin, Irish Aid.
http://www.ubuntu.ie/media/bryan-learning-to-read-the-world.pdf

Chiarotto, L. 2011. Natural Curiosity: Buildi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roughEnvironmental Inquiry: A Resource for Teachers. Toronto, ON, The Laboratory School at The Dr EricJackman Institute of Child Study, OISE, University of Toronto. http://www.naturalcuriosity.ca/.

Child & Youth Finance International. 2012. A Guide to Economic Citizenship Education: QualityFinancial, Social and Livelihoods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msterdam, Child & YouthFinance International.
http://childfinanceinternational.org/library/cyfi-publications/A-Guide-to-Economic-Citizenship-Education-Quality-Financial-Social-and-Livelihoods-Education-for-Children-and-Youth-CYFI-2013.pdf

Classroom Connections.Cultivating a Culture of Peace in the 21st Century.
http://www.cultivatingpeace.ca/cpmaterials/module1/

Classroom Connections.Cultivating Peace – Taking Action.
http://www.classroomconnections.ca/en/takingaction.php.

Council of Europe, OSCE/ODIHR, UNESCO and OHCHR. 2009.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Warsaw,OSCE/ODIHR.http://www.osce.org/odihr/39006?download=true

Earth Charter.http://www.earthcharterinaction.org/content/

Education Scotland. Developing global citizens curriculum within Curriculum for Excellence.
http://www.educationscotland.gov.uk/learningteachingandassessment/learningacrossthecurriculum/themesacrosslearning/globalcitizenship/about/developingglobalcitizens/what.asp

Evans, M. and Reynolds, C. (eds). 2004.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in a Changing World: A

Teacher's Resource Handbook. Toronto, ON, OISE/UT Online publication.

http://www.oise.utoronto.ca/cidec/Research/Global_Citizenship_Education.html

Global Citizenship Curriculum Development (GCCD).Faculty of Education International and Center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Research and University of Alberta International.
http://www.gccd.ualberta.ca/

Global Dimension: The World in Your Classroom. http://globaldimension.org.uk/

Global Teacher.http://globaldimension.org.uk/resources/item/2107

Global Teacher Education.Global Education Resources for Teachers.
http://www.globalteachereducation.org/global-education-resources-teachers

Global Youth Action Network.http://www.youthlink.org/gyanv5/index.htm

Larsen, M. 2008. ACT! Active Citizens Today: Global Citizenship for Local Schools. London, ON,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ttp://www.tvdsb.on.ca/act/KIT_PDF_files/B-Introduction.pdf

McGough, H. and Hunt, F. 2012. The Global Dimension: A Practical Handbook for Teacher Educators.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http://www.ioe.ac.uk/Handbook_final(1).pdf

Montemurro, D., Gambhir, M., Evans, M. and Broad, K. (eds). 2014. Inquiry into Practice: Learningand Teaching Global Matters in Local Classrooms. Toronto, ON, OISE, University of Toronto.
http://www.oise.utoronto.ca/oise/UserFiles/File/TEACHING_GLOBAL_MATTERS_FINAL_ONLINE.pdf

Open Spaces for Dialogue and Enquiry (OSDE) Methodology.
http://www.osdemethodology.org.uk/osdemethodology.html

Oxfam. 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ord, England, Oxfam GB.http://www.oxfam.org.uk/~/media/Files/Education/Global%20Citizenship/education_for_global_citizenship_a_guide_for_schools.ashx

Oxfam. Global Citizenship Guides:
http://www.oxfam.org.uk/education/global-citizenship/global-citizenship-guides

Oxfam. 2008. Getting Started with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New Teachers. Oxford,England, Oxfam GB. https://www.oxfam.org.uk/~/media/Files/Education/Global%20Citizenship/GCNewTeacherENGLAND.ashx

Sinclair, M., Davies, L., Obura, A. and Tibbitts, F. 2008.Learning to Live Together: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or Life Skills, Citizenship, Peace and Human Rights. Eschborn,Germany, Deutsche GesellschaftfürTechnischeZusammenarbeit (GTZ) GmbH.
http://www.ineesite.org/uploads/files/resources/doc_1_Learning_to_Live_Together.pdf

TakingITGlobal.http://www.tigweb.org

The Paulo and Nita Freire International Project for Critical Pedagogy.Teacher resources.
http://www.freireproject.org/resources/in-the-classroom/

Tunney, S., O'Donoghue, H., West, D., Gallagher, R., Gerard, L. and Molloy, A. (eds). 2008. Voice our Concern. Dublin, Amnesty International. http://www.amnesty.ie/voice-our-concern.

UNEP. 2010. Here and Now! Education for Sustainable Consumption Recommendations andGuidelines. Nairobi, UNEP. http://www.unep.org/pdf/Here_and_Now_English.pdf

UNESCO. Teaching and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A multimedia teacher educationprogramme.
http://www.unesco.org/education/tlsf/

UNESCO. 201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rcebook. Paris,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63/216383e.pdf
Videos available in English:
http://www.unesco.org/archives/multimedia/?pg=34&pattern=Sourcebook&related=

UNESCO. 2014. How is Global Citizenship Taught? Wisdoms from the Classroom.
http://www.unescobkk.org/education/news/article/how-is-global-citizenship-taught-wisdoms-from-the-classroom/

UN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Cyber School Bus.
www.un.org/Pubs/CyberSchoolBus/

교육과정 정책 사례(Curriculum policy examples)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Education Law (2008).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호주(AUSTRALIA)

The 2013 Australian Curriculum.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Melbourne Declaration of Educational Goals for Young Australians (2008).In UNESCO. 2014.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캐나다(CANADA)

Global Citizenship Curriculum Development, Faculty of Education International and Centr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Research and University of Alberta International
http://www.globaled.ualberta.ca/en/OutreachandInitiatives/GlobalCitizenshipCurriculumDev.aspx

콜롬비아(COLOMBIA)

Guía 48, Ruta de gestión para alianzasen el desarrollo de compentenciasciudadanas, Ministerio de Educación Nacional. Colombia. 2014.
http://www.mineducacion.gov.co/1621/w3-article-339478.html

Global citizen competencies in Colombia.
http://www.mineducacion.gov.co/cvn/1665/article-75768.html

인도네시아(INDONESIA)

The 2013 curriculum.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필리핀(PHILIPPINES)

The K-12 curriculum.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한국(REPUBLIC OF KOREA)

Charter of Gyeonggi Peace Education.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The 2009 curriculum.In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 Bangkok,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Bangkok, UNESCO. The publication examines how 10 countries – Afghanistan, Australia, Indonesia,Malaysia, Myanmar, Nepal,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ri Lanka and Thailand – are usingeducation as a vehicle to promote peace and mutual understanding.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글로벌 교육협력 자료(Global collaboration resources)

E-Pals.http://www.epals.com/#!/main

The Global Teenager Project.http://www.globalteenager.org/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Challenge 20/20.
http://www.nais.org/Articles/Pages/Challenge-20-20.aspx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networks/global-networks/aspnet/

UNESCO ASPnet in Action: Global Citizens Connect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en.unesco.org/aspnet/globalcitizens

UNESCO. 2014. Learning to Live Together: Education Policies and Realities in the Asia-Pacific.Bangkok, UNESCO.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72/227208E.pdf

관련기관 및 계획 · 구상(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British Council's Connecting Classrooms.
https://schoolsonline.britishcouncil.org/linking-programmes-worldwide/connecting-classrooms/%20spotlight/Lebanon

Centr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Research, University of Alberta.
http://www.cgcer.ualberta.ca/AboutCGCER.aspx

Child Safety Project Online, the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Lebanon.
http://www.crdp.org/en/desc-projects/6240-%20Child%20Safety%20Online

Council of Europe. 2012. Compass -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www.coe.int/compass

Developing a Global Perspective for Teachers.http://www.developingaglobalperspective.ca/gern/

Education Above All.http://educationaboveall.org

The European Centre for Global Interdependence and Solidarity (North-South Centre),the Council of Europe.http://www.coe.int/t/dg4/nscentre/default_en.asp

The Freire Project.http://www.freireproject.org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Initiative on Education.http://www.globaleducationfirst.org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http://www.gene.eu

The JUMP! Foundation Global Leadership Center @ NIST.
http://jumpfoundation.org/jcommunity/jump-bangkok-hub/jump-global-leadership-center-nist-south-east-asia/

Learning Metrics Task Force.
http://www.brookings.edu/about/centers/universal-education/learning-metrics-task-force-2

The Longview Foundation.http://longviewfdn.org/
The MasterCard Foundation.

http://www.mastercardfdn.org/youth-learning/the-mastercard-foundation-scholars-program
New Pedagogies for Deep Learning Project.http://www.newpedagogies.org

Power Politics project (between Aberdeen, Scotland and Nigeria).
http://www.powerpolitics.org.uk/resources

Tunisia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school clubs.
http://www.unesco.org/new/en/media-services/single-view/news/launch_of_the_first_citizenship_and_human_rights_school_club_in_tunisia/#.VZoglxvtlBd

교수법 및 전문지식 학습 지원(Teaching and Professional Learning Support)

Andreotti V. and Souza, L. 2008. Learning to Read the World Through Other Eyes.Derby, England,Global Education.
https://www.academia.edu/575387/Learning_to_Read_the_World_Through_Other_Eyes_2008_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http://www.unescoapceiu.org/en/m211.php?pn=2&sn=1&sn2=1&seq=34

Council of Europe. 2009. 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Strasbourg, France, Council of Europe.
http://www.theewc.org/uploads/content/archive/6555_How_all_Teachers_A4_assemble_1.pdf

Global Teacher Education (GTE). Established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Longview Foundation's2008 report Teacher Preparation for the Global Age: The Imperative for Change
(http://www.longviewfdn.org/122/teacher-preparation-for-the-global-age.html)

Mahatma Gandhi Institute of Education for Peace & Sustainable Development (MGEIP).
http://mgiep.unesco.org/

UNESCO. 2005.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for Reorienting Teacher Education to AddressSustainability. Paris, UNESCO.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English.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33/143370e.pdf

UNESCO. 2012. Expl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 Multiple-Perspective Approach. Paris,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54/215431E.pdf

UNESCO and ECOWAS. 2013. Education for a Culture of Peace, Human Rights, Citizenship,Democracy and Regional Integration: ECOWAS Reference Manual. Dakar, UNESC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2/002211/221128e.pdfand
http://www.educationalapaix-ao.org/

UNICEF. 2011.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Practical Guide for Schools in Atlantic Canada.Canada, UNICEF.
http://www.unicef.ca/sites/default/files/imce_uploads/UTILITY%20NAV/TEACHERS/DOCS/GC/Educating_for_Global_Citizenship.pdf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온라인 수업교류 네트워크(Connecting Classrooms) schoolsonline.britishcouncil.org/about-schools-online/about-programmes/connecting-classrooms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유네스코협동학교 asp.unesco.or.k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유엔(United Nations, UN) www.un.org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ttp://www.unhcr.org/

유엔인권사무소(서울)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http://seoul.ohchr.org/KR/Pages/HOME.aspx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www.unep.or.k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 · 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연구 및 집필진 박순용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함영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교육연구관)

연구 자문 김다원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배성호 (서울삼양초등학교 교사)
주혜경 (원미고등학교 교사)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상희 (제주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사)

검토위원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유 철 (청명학생교육원장)
이정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ISBN 979-11-956142-3-3

2015년 12월 17일 1판 1쇄 발행

기획 · 편집 엄정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팀장)
김슬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팀 전문관)
김효정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팀 전문관)

제작대행 디자인 프리즘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 화 02-774-3956

전 송 02-774-3957

Photo cover credit: ©Shutterstock/mama_mia

Credits: pp.12-13, p.22, pp.56-57 ©Shutterstock/Danylo Staroshchuk

Graphic design: Aurelia Mazoyer

본 출판물에서 표현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줌으로써 변혁적인 교육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 책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첫 교수 · 학습 지침서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를 한국 교육의 맥락에 맞게 풀어 쓰고 설명한 해제본이다. 유네스코 지침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습 성과를 개념화하고, 포괄적인 학습 목표와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첫 길라잡이인 이 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한국의 교육현장이 21세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 걸맞은 풍부하고 활발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www.unescoapceiu.org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www.gcedclearinghouse.org

비매품
93370
9 791195 614233
ISBN 979-11-956142-3-3